

ISSN 2713-9638

經 學

4

2022. 12.

韓國經學學會

經學 4

2022. 12.

〈연구논문〉

- 茶山 『尙書古訓』의 훈고학적 접근 변은미 / 1
- 『詩名多識』 연구 및 학술적 가치 평가
— 『六家詩名物疏』, 『詩物名考』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高爭爭 / 39
- 동서 교류에 있어서 중국 경전의 번역 및 그 영향
— 초기를 중심으로 신원철 / 61
- 清代 滿漢合璧 四書에 관한 고찰
— 국내 소장 4종을 중심으로 최다정 / 77

〈서평〉

- 서평: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당윤희 / 103

〈부록〉

-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 111
-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118
-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 123
- 經學 論文 審査書 / 133
- 한국경학학회 임원 / 134
- 회원가입안내 / 135
- 원고 모집 안내 / 136

茶山 『尙書古訓』의 훈고학적 접근

변은미 *

-
1. 서론
 2. 다산의 훈고학
 - 1) 훈고학의 개념과 역사
 - 2) 다산의 훈고학 인식
 3. 『尙書古訓』의 훈고학적 접근
 - 1) 다산의 『尙書』 연구
 - 2) 『尙書古訓』의 훈고학 방법론
 4. 결론
-

■ 국문요약

『尙書古訓』은 다산 정약용이 가장 오랫동안 공을 기울인 저작이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계속 수정한 저술로 알려져 있다. 다산은 강진 유배기 때 자신의 초기 상서학 3부작인 『梅氏書平』, 『古訓蒐略』, 『尙書知遠錄』을 저술하였고, 해배 이후 『梅氏書平』을 개수하고 『古訓蒐略』, 『尙書知遠錄』을 합본한 『尙書古訓』을 완성하였다.

본고는 『고훈수략』,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과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방식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으로 합편하는 과정에서 다산이 어떤 자료를 취사했는지를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논지를 전개하였는지를 「堯典」 1장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Email: di0567@hanmail.net

다산은 기본적으로 古訓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진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역시 견지하고 있었다. 『상서』 훈고 작업의 목적은 ‘存古’임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옛것을 바르게 안 바탕에서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습本 과정에서 원문의 순서에 맞게 재배치 한 부분, 斷句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표시한 부분, 서명 표시를 확실히 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은 기존 저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부분이다. 새로운 학설을 추가로 제시한 부분 역시 살펴볼 수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閻若璩의 견해를 제시하며 자신의 안설을 뒷받침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주목된 부분은 古訓의 오류를 분석한 부분이다. 다산은 鄭玄이나 다른 한대 훈고학자들의 주석 가운데 본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빼지 않고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고훈의 증거력이 부족하더라도 고훈인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다산의 태도가 드러난다.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편찬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를 『상서고훈』에서 보완하며 기존 훈고의 오류를 반박한 부분 역시 확인하였다. 여기서 다산 자료운용의 실제 면모를 볼 수 있다.

주제어: 정약용, 『상서』, 「요진」, 『상서고훈』, 훈고학

1. 서론

『尙書』는 경서 가운데 가장 殘缺이 많은 책이자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았던 저술이다. 『古文尙書』의 진위여부 논쟁은 清代에 와서야 완결되는데, 그 배경에는 청대 고증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즉, 『상서』라는 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고증적 연구 방식이라는 청대 학술 경향에 힘입어 일단락된 것이다. 『상서』라는 책의 온전한 이해

를 위해 고증학이라는 학문적 방법론이 요구되었으며, 『상서』의 여러 논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증학이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다.

茶山 丁若鏞 역시 이러한 청대 고증학의 학술 성과를 수용한 바탕에서 자신의 尙書學을 발전시켰다. 정약용의 『상서』 연구는 유배기와 해배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08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초기 상서학 3부작인 『梅氏書平』, 『古訓蒐略』¹⁾, 『尙書知遠錄』을 저술하였고,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매씨서평』을 改修하고 『상서고훈』, 『상서지원록』을 합하여 『尙書古訓』을 편찬하였다.

유배기인 1810년에 첫 번째로 완성한 『매씨서평』은 東晉의 梅賾이 조정에 올린 『古文尙書』 58편 가운데 25편이 僞書임을 논증한 저술로, 『고문상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특히 『고문상서』를 옹호한 毛奇齡의 『古文尙書冤詞』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산은 이어서 『今文尙書』를 대상으로 훈고 수집 작업에 착수하여 『고훈수략』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추가해서 1811년에 완성한 책이 바로 『상서지원록』이다. 『고훈수략』이 여러 훈고 자료를 수집해놓은 책이라면, 『상서지원록』은 이를 바탕으로 다산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책이다.

유배기 때 자신의 초기 상서학 3부작을 완성한 다산은 해배 이후 閻若璩의 『尙書古文疏證』을 보게 되고, 자신과 거의 일치하는 의견을 개진한 저술이 앞서 나왔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이후 당시의 상황을 술회한 글에서 “내 책은 없애버려도 좋겠다.”라는 실망 섞인 말을 내뱉기도 하였다.²⁾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이 엄약거에 의해 밝혀졌고 이후 여러

1) 『古訓蒐略』의 원래 서명은 『尙書古訓』이다. 다산이 노년기에 상서학을 완결하면서 저술한 합본의 서명 역시 『尙書古訓』이므로, 『古訓蒐略』 또는 『尙書古訓蒐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당 책의 서명을 『古訓蒐略』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2) 『與猶堂全書』 經集 卷32, 『梅氏書平』, 『閻氏古文疏證百一抄』, “余書今廢之, 可矣.”

청대 학자들이 엄정한 고증으로 해당 논의를 발전시켰는데 자신은 이를 보지 못했음에 절망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중국 밖 구석진 나라에 있는 나의 고루한 견해가 중화의 뛰어난 학자의 견해와 서로 상의 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았구나.’라고 생각했다.”³⁾ 등의 언급을 보면, 자신이 염약거의 『상서고문소증』을 보지 못했음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 역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⁴⁾

본고는 『고훈수략』,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과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방식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으로 합편하는 과정에서 다산이 어떤 자료를 취사했는지를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논지를 전개하였는지를 『堯典』 1장을 대상으로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훈고학을 연구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하였다. 자료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성리학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의 학술 풍토에서, 이러한 몇몇 제한점을 딛고 어떻게 훈고학적 접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배태된 새로운 특징은 없는지 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김언중은 “다산의 경학 저술은 청대 초엽까지의 훈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더한 탈성리학적이자 독창적인 의리학으로 완성된 것이다.”⁵⁾라고 하였으며, 심경호는 “다산 정약용은 필롤로지의 방법

3) 같은 글, “竊自幸海外僻陋之見, 得與中華大方之家, 不謀而同.”

4) 다산의 이러한 탄식은 『상서』에 대한 청대의 우선권 논쟁과도 관련있다. 연구의 방법이 복잡해지고 수많은 연구자의 관심이 특정한 주제에 집중되었던 청대의 학술 풍토에서 연구 결과의 우선권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고문상서』에 대해 17세기의 염약거, 18세기 중반의 惠棟, 18세기 말의 崔述은 각자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현상에 있어 우선권 논쟁이 존재하였다. 벤자민 엘빈 지음, 양휘웅 옮김(2004) 422~426면 참조.

5) 김언중(2012), 37면.

론을 활용하여 인간학의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⁶⁾라고 하며 다산 훈고학을 설명한 바 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우선 훈고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훈고’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훈고학을 둘러싼 중국의 학술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다산 정약용의 훈고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상서』 「堯典」 1장에 대한 『고훈수략』, 『상서지원록』과 『상서고훈』의 내용을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자료 활용과 立說 방식을 검토하였다.

정약용의 훈고학에 대해서는 『맹자요의』와 『매씨서평』에서 보이는 훈고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⁷⁾, 다산 경학의 훈고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⁸⁾가 이루어졌다. 특히 심경호는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문자학·음운학·훈고학 등의 小學과 학문계보학인 目錄學을 포괄하는 학문 영역으로 규정하고, 다산의 문헌연구 방법은 반드시 모기령 이후 청나라 고증학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며 그 방법은 훈고학의 발달사와 조선 경학의 전개 과정에서 배태된 것이기도 했다고 분석하였다.

정약용의 상서학에 대한 연구로는 다산 상서학 저술에 대한 분석⁹⁾, 서지학적 고찰¹⁰⁾, 상서론 연구¹¹⁾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약용의 『상서고훈』에서 보이는 훈고학적 특징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6) 심경호(2012), 8면.

7) 정병련(2000); 김소영(2019).

8) 박상제(2002); 양원석(2007); 심경호(2012).

9) 김문식(2013); 김성재(2018).

10) 김보름(2021); 김성재(2021).

11) 김언중(2012); 임현규(2015); 진역령(2016).

2. 다산의 훈고학

1) 훈고학의 개념과 역사¹²⁾

訓詁라는 용어는 본래 連用되는 두 개의 單音詞였다. 訓은 '설명하고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詁의 본의는 '옛말'인데 引伸되어 '옛말을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두 단어 간의 의미상 차이에 대해서는 역대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랐지만,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훈고의 논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訓과 詁는 나누어 말하면 모두 '해석'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해석하는 것을 한 글자로 '고'나 '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훈고'나 '고훈'이라고 할 수도 있다.

訓과 詁를 합하여 말하면 '옛말을 해석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훈'과 '고'는 동사, 명사의 용법을 겸하며, 詁는 옛 글자에서 故와 통한다. 그러므로 '옛말을 해석한다.' 또는 '옛말의 해석'이라 할 수도 있다.¹³⁾

訓詁學은 훈고와 관련한 모든 작업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훈고의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가 파생되는데, 이를 통틀어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훈고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론인 形訓, 義訓, 聲訓과 이를 둘러싼 한자학 이론, 훈고 저술과 주석, 그리고 이러한 훈고 자료의 활용까지 모두 훈고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훈고학은 고대의 저작에 담긴 古語와 지금 사용하는 용어 간의 의미적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고어의 本義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특히 秦나라의 焚書坑儒 이후 漢나라 때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

12) 해당 절은 전광진 編譯(1993), 242-267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3) 周大璞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1997) 참조.

법론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발전하였으므로, 漢代의 학술 경향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훈고학은 좁은 의미로는 한대의 학술 경향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온 해석 방법론이다.¹⁴⁾

훈고학은 春秋戰國시대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언어가 발전되어 시대적 차이와 방언적 차이가 생겼으며, 서면언어와 구두언어의 낱말이 달라졌다. 또한 사회의 발전으로 名物이 번다해져서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낱말을 통해 사유를 전개하는 경향도 발전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훈고학이 흥기하였다.

이후 兩漢시기에는 진나라 때 분서갱유의 영향으로 先秦시대의 고적들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훈고학자들은 경전에 주석을 달면서 올바른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문 훈고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저서로는 『爾雅』, 『方言』, 『說文解字』, 『釋名』이 있다.

14) 훈고학이라는 학술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훈고학과 고증학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두 용어가 변별되는 지점을 서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통 시대성을 지닌 좁은 의미로는 '한대의 훈고학', '청대의 고증학'을 가리키는 말로 '훈고학'과 '고증학'이 쓰였다. 한대에 분서갱유로 인해 훼손된 경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자구의 의미를 밝히는 훈고 작업들이 집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학문 경향을 '훈고학'이라고 하고, 청대에 한대 훈고학의 방법론을 숭상하면서 발전하게 된 학문 분야를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성을 넘어선 넓은 의미로는 자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작업을 '훈고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증학' 역시 객관적이고 실증적 방법론을 수행하는 학문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는 훈고학이 고증학의 한 하위 갈래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훈고학은 고증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자구의 해석을 위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고증학은 '교감학', '고음학', '훈고학', '목록학', 심지어 '친문학', '수학' 등의 실증적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도 쓰이게 된다. 이러한 학문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심경호(2012)는 '필로로지(philology)'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문자학·음운학·훈고학 등의 小學과 학문계보학인 目錄學을 포괄하는 학문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넓은 의미에서의, 즉 훈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들을 통틀어 '훈고학'의 범위에 넣었고, '훈고학적 접근'이라는 용어 역시 그러한 훈고 작업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魏晉南北朝시기에는 郭璞의 『爾雅注』와 『方言注』, 隋唐시대에는 孔穎達의 『五經正義』를 대표적인 훈고학 저술로 꼽을 수 있다. 이 저술들은 이전 시대의 주석을 취사선택하고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더하여 많은 훈고 자료를 회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宋元明시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해 훈고학 방면의 연구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鍾鼎彝器 연구와 文字學 연구의 발전으로 인해 본격적인 한자학 이론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清代에는 고증적 학풍이 일면서 한대의 훈고학을 극력 숭상하였다. 특히 『爾雅』와 『說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를 연구한 중요 저작들이 많이 생겨났다. 청대의 훈고학은 古音學의 성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언어와 문자의 관계를 확실히 밝히면서 聲音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훈고와 성음의 관계를 언급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戴震: 훈고와 음성은 서로 표리 관계에 있다.¹⁵⁾

王念孫: 내 생각으로는 훈고의 본지는 聲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발음은 같은데 글자는 다른 것이 있고, 발음이 비슷하고 뜻이 같은 것이 있다. 간혹 어떠한 부류로 모아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맥락이 같은 것이다.¹⁶⁾

段玉裁: 성인이 글자를 만듦에 있어서는 먼저 뜻이 있고 난 뒤에 음이 있었고, 음이 있는 후에 형태를 만들어냈다. 학자가 글자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형태를 보고서 그 음을 알아내고, 그 음을 가지고

15) 戴震, 『六書音均表』 「六書音均表序」, “訓詁音聲, 相爲表裏.”

16) 王念孫, 『廣雅疏證』 「廣雅疏證 自序」, “竊以訓詁之旨, 本於聲音. 故有聲同字異, 聲近義同, 雖或類聚群分, 實亦同條共貫.”

그것의 뜻을 찾아내야 한다. 경전을 읽을 때 뜻을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뜻을 구할 때 소리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없다.¹⁷⁾

청대 학자들의 훈고학적 성과는 매우 컸지만 이에 대한 결점 역시 지적되었다. 첫째로, 『설문』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점이다. 『설문』의 글자가 모두 本義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문』의 풀이만을 맹신하였지만, 이후 출토된 갑골문이나 금문에 의해 많이 반박되었다. 둘째로, 훈고 해석에 음의 轉變을 너무 무리하게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古語의 본의를 무리하게 풀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훈고학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19세기에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고증학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18~19세기 청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한 어려움은 고증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비이론적'이고 '비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의식을 야기하였다.¹⁸⁾

2) 다산의 훈고학 인식

茶山 丁若鏞은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이자 경전 해석에 있어 다양한 創見을 제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정약용의 경전해석법은 의리와 훈고의 측면을 겸했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五學論」을 지어서 당대의 다섯 가지 주요 학문 경향인 性理學, 訓詁學, 文章學, 科擧學, 術數學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물론 「五學論」에는 다섯 학문의 폐단에 대한 비판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성리학과 훈

17) 段玉裁, 『廣雅疏證』 「廣雅疏證序」, “聖人之制字有義而後有音, 有音而後有形. 學者之考字, 因形以得其音, 因音以得其義. 治經莫重於得義, 得義莫切於得音.”

18) 청대 고증학 비판과 관련된 여러 논의는 벤자민 엘먼 지음, 양휘웅 옮김(2004) 「대단원」 부분 참조.

고학 부분은 나머지 세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각 글의 서두를 보면 분명하게 보인다.

性理學은 도를 알고 자신을 알아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¹⁹⁾

訓誥學은 경전의 글자 뜻을 밝혀 道學과 名敎의 지취를 알게 한다.²⁰⁾

文章學은 吾道의 큰 해독이다.²¹⁾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과 같은 기교로 온 천하를 통솔하는 것이 科擧學이다.²²⁾

術數學은 학문이 아니라 미혹하는 술책이다.²³⁾

문장학, 과거학, 술수학을 학문 그 자체로 비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리학과 훈고학에 대해서는 각 학문이 가지는 의의를 먼저 서술하였다. 즉, 성리학과 훈고학의 경우 학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산은 성리학과 훈고학을 제대로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19) 『與猶堂全書』文集 卷11, 「五學論 一」, “性理之學, 所以知道, 認己以自勉, 其所以踐形之義也.”

20) 같은 책, 「五學論 二」, “訓誥之學, 所以發明經傳之字義.”

21) 같은 책, 「五學論 三」, “文章之學, 吾道之鉅書也.”

22) 같은 책, 「五學論 四」, “主斯世而帥天下以倡優演戲之技者, 科擧之學也.”

23) 같은 책, 「五學論 五」, “術數之學, 非學也惑也.”

지금의 학자는 한나라 학자들의 주석을 고증하여 훈고를 찾고 주자의 집전을 가지고 의리를 찾는다. 시비와 득실 또한 반드시 경전을 통해 결정한다면, 육경사서는 본래의 뜻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확신하게 되고 처음에는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바로 통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된 뒤에야 체득하여 행하게 되고 행하여 증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로는 몸을 닦고 집을 다스려 국가와 천하까지 다스릴 수 있고 위로는 하늘의 덕에 통달하여 천명을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인 것이다.²⁴⁾

위의 글을 통해 정약용이 훈고학과 의리학의 절충을 경전해석의 방법론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²⁵⁾

정약용은 기존 훈고학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였다.

秦始皇의 분서갱유 이후로 스승에게서 학문을 전수받는 일이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漢武帝 이후 처음으로 五經博士를 學官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門戶가 설립됨에 따라 支派가 나누어졌다. 이후 위진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름난 학자가 무더기로 배출되었고, 孔穎達과 賈公彥에 이르러 註疏로 경전을 해석하게 되자 천하 사람들이 바람에 쓰러지듯 이를 받들었으니, 성대하다고 할 만하였다. 그러나 전수된 훈고가 모두 본래의 뜻이라고 기필할 수는 없고, 본래의 뜻을 터득한 것이라 해도 글자의 뜻만 밝히고 구두를 바르게 끊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선왕(先王)과 선성(先聖)의 도학과 명

24) 같은 책, 「五學論 二」, “今之學者, 考漢注以求其詰訓, 執宋傳以求其義理, 而其是非得失, 又必決之於經傳, 則六經四書其原義本旨, 有可以相因相發者, 始於疑似而終於真的, 始於彷徨而終於直達. 夫然後體而行之, 行而驗之, 下之可以修身齊家爲天下國家, 上之可以達天德而反天命, 斯之謂學也.”

25) 훈고학과 성리학이란 넓은 의미로는 어느 시대에나 사용되었던 경전해석 방법론이기도 하면서 좁은 의미로는 한대 훈고학, 송대 성리학, 즉 특정 시대의 학술 경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정약용은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사용하면서도, 좁은 의미로의 한대 훈고학과 송대 성리학 각 부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의 근원에 대해 그 깊은 뜻을 엿보아 규명할 수가 없었다. …… 지금의 훈고학이라는 것은 漢나라와 宋나라의 것을 절충한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한나라의 것만을 존중하고 있을 뿐이다. 또 宮室과 蟲魚에 대해 훈고하여 글자의 뜻만 통하게 하고 구두만 끊었을 뿐이고, 성명의 이치나 효제의 가르침이나 예약형정의 문장에 대해서는 진실로 어둡다. 송나라 때의 학문이 반드시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필코 몸과 마음으로 이를 체행하여 행하려는 자세는 옳다. 지금은 장구만을 훈고해서 같고 다름에 대한 연혁만 고찰할 뿐 是非와 邪正을 판별하여 체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으니, 이것은 또 무슨 법이란 말인가. 26)

우선 주목할 부분은, 정약용이 훈고학이 가진 한계점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① 한대에 전수한 훈고가 본래의 뜻이라고 기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② 본래의 뜻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훈고학은 단순한 글자 뜻풀이와 자구의 해석에만 머물러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훈고에만 얽매이는 경전해석 방법이 아니라 송대의 의리학과 절충하면서 是非와 邪正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산의 경전해석법에는 기존 훈고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서의 새로운 훈고학적 해석방법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성리학과 훈고학의 절충이라 할 수 있다. 27)

다음으로는 다산이 실제 『상서』 해석에 있어서 훈고의 역할을 직접적

26) 『與猶堂全書』文集 卷11, 「五學論 二」, “秦燔之厄, 師承遂絕. 武帝以來, 五經始有官學. 門戶既立, 枝派以分, 下逮魏晉, 名儒林立, 至孔穎達, 賈公彥爲之疏釋, 而天下靡然宗之, 可謂盛矣. 然其詁訓之所傳受者, 未必皆本旨. 雖其得本旨者, 不過字義明而句絕正而已. 于先王先聖道教之源, 未嘗窺其奧而溯之也. …… 今之所謂詁訓之學, 名之曰折衷漢宋, 而其實宗漢而已. 詁宮室訓蟲魚, 以之通其字絕其句而已. 于性命之理, 孝弟之教, 禮樂刑政之文, 固昧昧也. 宋未必盡是, 而其必欲體行於心與身則是矣. 今也唯詁訓章句其異同沿革, 是考是察, 曾不欲辨是非別邪正, 以求其體行之術, 斯又何法也.”

27) 물론 성리학과 훈고학의 절충이라는, 다소 일반론적인 결론 앞에서 다산의 경전해석 방법론을 면밀히 따져보고 사례를 통해 실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본고의 연구목표도 그것이다.

으로 언급한 글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尙書知遠錄序說」의 한 부분이다.

나는 글을 읽는 방법은 반드시 詰訓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훈이란 ‘글자의 뜻[字義]’이다. 글자의 뜻이 통한 뒤에야 구절이 풀리고, 구절의 뜻이 통한 뒤에야 장의 뜻이 밝혀지고, 장의 뜻이 통한 뒤에야 편의 대의가 드러난다. 여러 경서가 다 그러하지만 『상서』가 더욱 그러하다. 내가 먼저 고훈에 힘쓴 이유가 이 때문이다. -먼저 고훈을 모은 일을 말한다. - 후세에 경서를 말하는 선비들이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먼저 의론을 일으켰으므로 심미한 뜻을 논하는 말이 길면 길 수록 성인의 본뜻은 더욱 어두워졌다. 터럭만큼의 차이로 마침내 연라나와 월나라처럼 멀어지고 말았으니, 이는 經術의 큰 장애이다. …… 후세의 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古訓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스스로 일가를 이룬 후에는 반드시 전시대의 고훈을 없애버렸다. …… 자구를 훈고함은 그 목적이 옛날 제왕의 사적을 알려는 데 있다. 알아서 무엇 하는가? 오늘에 시행하려는 것이다. ……28)

다산은 詰訓을 정의하고, 경서를 읽을 때 우선해야 하는 작업이라 하였다. 특히 『상서』의 경우 더욱 그렇게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훈수략』을 만들면서 우선 古訓을 모으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또한 古訓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구를 훈고함으로써 옛 사적을 알고 그것을 오늘 시행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오학론」에서 다산이 훈고학에 대해 지적한 ②의 내용과 일치한다. 훈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단순히 글자 뜻풀이와 자구 해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8) 같은 책, 經集 卷21, 『尙書古訓』 「尙書知遠錄序說」, “余惟讀書之法, 必先明詰訓. 詰訓者, 字義也. 字義通而后句可解, 句義通而后章可析, 章義通而后篇之大義見, 諸經盡然而書爲甚. 余所以先致力於詰訓者, 此也. 【謂先蒐古訓】 後世談經之士, 字義未了, 議論先起, 微言愈長, 聖旨彌晦, 毫釐既差, 燕越遂分, 此經術之大蔽也. …… 後世解經, 不得不依據古訓, 而自成一派之後, 必掃盪前古. …… 詰字訓句, 歸知遠古帝王之事而已. 知之奈何? 將以施諸今也. ……”

나는 歐陽生·夏侯氏·馬融·鄭玄의 설이 모두 경의 본뜻과 아주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잠박하고 틀린 내용도 분명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은 성인의 뜻이다. 지금 것이 비로 정교하더라도 예전 것의 졸박함만 못할 것이다. …… 이는 감히 옛것이 옳고 지금 것이 그르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없어지는 것을 보존하고 끊어진 것을 이으려는 것이다. ……²⁹⁾

이 글에서는 古訓에 대한 다산의 태도가 드러난다. 먼저, 한대의 훈고라고 해서 모두 경의 본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한대에 전수한 훈고가 반드시 본래의 뜻이라고 기필할 수 없다는 「오학론」 ①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믿고 좋아해야 하며, 없어지는 것을 보존하고 끊어진 것을 잇기 위해 古訓을 함께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 「尙書古訓凡例」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두 책을 합한 것인데도 제목을 그대로 『尙書古訓』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설을 덧붙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古訓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³⁰⁾

여덟째, 이 책을 지은 것은 옛것을 보존하기 위해서이지 경을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의 훈고에 간혹 전부를 빠뜨린 것이 있고, 의리에 대한 시비 또한 전부를 해석한 것은 없다. 이는 蔡沈의 註가 좋다고 여겨서이다. 채침의 주에 대해서는 간혹 틀린 것이

29) 같은 곳, 「古訓蒐略序說」, “余惟歐陽夏侯馬鄭之說, 未必皆深中聖旨, 駘駘紕繆者, 固亦不少, 然信而好古, 聖人之義也. 今者雖工, 不如古拙. …… 非敢是古而非今, 只欲存亡而繼絕. ……”

30) 같은 곳,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 “書雖兩合, 仍名之曰尙書古訓, 蓋新說雖附, 猶以古訓爲主也.”

있을 때에야 논변하였고, 훌륭한 점이 있을 때는 표장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수록하지 않았으니, 채침의 주가 지금 널리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梅蹟의 주에 비록 오활하고 치우친 점이 많으나 다 자세히 논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훈에 대해서는 비록 가려져 있고 비루하여 전혀 쓸데가 없더라도 다 수록해두었다. 본래의 뜻이 옛것을 보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³¹⁾

『상서고훈지원록합편서설』에서 다산은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합한 새 저술을 옛 이름 그대로 『상서고훈』이라 한 이유는, 여전히 古訓, 즉 한대의 훈고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서고훈범례』에서 이 책을 지은 것은 ‘옛것을 보존하기 위함[存古]’임을 두 번이나 밝혀두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산의 훈고자료 운용 법칙을 정리하자면, 다산은 기본적으로 古訓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역시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서』라는 경학 텍스트에 대한 훈고 작업의 수행 목적은 ‘存古’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存古’는 『상서지원록』의 ‘知遠’과도 같은 의미이다.

물론, 상서라는 책이 가장 잔결이 많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경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存古’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산은 결국 存古를 해야 옛것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古訓이 절대적인 증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중시하였으며, 存古라는 목적 하에 궁극적으로는 현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31) 같은 곳, 「尙書古訓凡例」, “一. 是編之作, 爲存古也, 非釋經也. 故字句訓詁, 或有全缺, 義理是非, 亦無全釋者, 概以蔡註爲善也. 蔡註或有錯誤, 方有論辨, 或有卓異, 方有表章, 餘皆不錄, 爲方行世也. 梅註雖多迂僻, 皆不細論, 爲非時俗所用也. 至於古訓, 雖蔽冒舛陋, 百無可取, 悉錄之, 爲本意在於存古也.”

해당 내용의 논지는 다소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산은 漢代의 고훈을 존중하였지만, 새로운 학설과의 비교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옛것을 존중한 것이지, 옛것이 옳고 지금 것이 그르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말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³²⁾

이상과 같은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자료가 한정되었던 유배기 때 완성한 두 저술 『고훈수략』, 『상서지원록』과 해배기 이후 새로운 학설들을 수용한 바탕에서 보완하여 저술한 『상서고훈』을 비교 검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요전」 1장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시도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3. 『尙書古訓』의 훈고학적 접근

1) 다산의 『尙書』 연구

본고의 주 연구 대상은 『尙書古訓』이고, 이에 대한 일차적 저술로서 존재하는 『古訓蒐略』, 『尙書知遠錄』을 함께 대조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우선 각 서종별 이본을 소개하고,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선본과 그 선정 이유를 설명하겠다. 각 서종별 이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32) 청대 고증학의 기조인 '復古'와 다산 정약용의 '存古'는 어느정도 일치하는 목적성을 가지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3) 각 서종별 이본 현황에 대해서는 김문식(2007)과 김성재(2021)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古訓蒐略』 6권 2책	『尙書知遠錄』 7권 3책	『尙書古訓』 3권 1책
①가장본: 1책(4~6권)만 존재 ②쓰쿠바대본: 6권 2책 ③규장각본: 6권 2책	①가장본: 2책 (권4~7, 「상서지원록목차괄의」) ②여유당전서보유본: 7권 ③버클리대본: 7권 3책 ④규장각본: 7권 3책 ⑤신조선사본: 7권 3책	①신조선사본: 3권 1책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본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토 기준을 정하였다.

『고훈수략』의 경우 ‘①가장본’에는 권1-3이 없으므로 ‘③규장각본’을 우선으로 검토하였다. 『상서지원록』과 『상서고훈』은 定本에 있는 대본을 우선으로 하되, 『상서지원록』은 ‘①가장본’과 거의 일치한다고 알려진 ‘②여유당전서보유본’과 ‘④규장각본’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다산의 훈고 자료 운용 원칙을 서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다. 『상서고훈』의 卷首에는 「尙書古訓序例」가 있는데, 「古訓蒐略序說」, 「尙書知遠錄序說」,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 「尙書古訓凡例」와 「尙書序」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여기서 살펴볼 것은 「고훈수략서설」, 「상서지원록서설」, 「상서고훈지원록합편서설」, 「상서고훈범례」로, 해당 글에는 각 저술의 편찬 목적과 자료 취사에 관한 다산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고훈수략서설」과 「상서지원록서설」의 내용이다.

五經 가운데 『상서』가 잔결이 가장 많은데 그 가운데 다행히도 없지 않은 것이 오직 28편이다. 바로 복생이 벽 속에 감춰 두었다가 今文으로 옮겨 쓴 것으로 歐陽生과 大夏侯氏·小夏侯氏 三家의 해설이

있었다.

또 공자 옛 집의 벽 속에서 나온 『古文』에 대해서는 馬融과 鄭玄 두 사람의 주석이 있었다. 그런데 복생의 학은 永嘉의 난 때 망실되었고 孔安國의 학은 당나라 때 망실되었다. …… 오직 孔穎達의 『尙書正義』나 다른 경의 注疏에 구양생·하후씨·마옹·정현의 설을 인용한 부분이 간혹 있어 때때로 그 일부를 볼 수 있는데, 주나라의 寶鼎이나 은나라의 禮器처럼 광채가 찬란하다. 이에 한두 文友와 서둘러 채집하고 엮었다. 또 『史記』나 『說文』 같은 책에 실려있는 『상서』의 문구를 찾아 모아서 동이점을 살펴보았으며, 『春秋左氏傳』·『國語』·『禮記』·『論語』·『孟子』에서 간혹 『상서』를 인용한 내용-28편을 인용한 것-이 있으면 역시 채록하였다. 그것을 차례대로 편집하고 간간히 나의 견해를 덧붙여 취사하는 뜻을 보였다. 이를 합하여 『古訓蒐略』이라고 하니, 모두 6권이다.³⁴⁾

나는 매색·채집 두 사람의 설과 남아 있는 고훈을 가지고 동이점을 고찰하고 이리저리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옛것을 옳게 보고 지금의 것을 틀렸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옛 뜻을 버리고 새 뜻을 취하기도 하였다. 여러 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나의 견해를 덧붙이고, 나머지 의문점은 그대로 남겨서 孔子의 가르침을 따랐다. ……³⁵⁾

다산은 『고훈수략』에서 漢代 구양씨, 하후씨, 마옹, 정현의 주석을 채집하고 엮었다고 하였는데, 그 광채가 찬란하다고 한 부분에서 고훈을

34) 『與猶堂全書』經集 卷21, 『尙書古訓』「古訓蒐略序說」, “五經之中, 尙書最受殘缺, 其幸而不亡者, 唯二十八篇, 乃伏壁今文, 有歐陽夏侯三家之說. 孔壁古文, 有馬融鄭玄二子之註, 而伏學亡於永嘉, 孔學亡於唐代. …… 唯孔穎達正義及他經注疏, 其或引歐陽夏侯馬鄭之說者, 時見一斑, 則周鼎殷彝, 藜光粲然. 茲與一二文友, 採掇惟亟. 又如史記說文凡載尙書之文句, 搜別附合, 以考同異, 而左傳國語禮記論孟之中有或引書者, 【引二十八篇者】因亦採錄, 按次編列, 間附已見, 表示取舍之意. 合而名之曰古訓蒐略, 凡六卷.”

35) 같은 곳, 「尙書知遠錄序說」, “余執梅蔡二家之說, 與古訓所殘, 考其同異, 反復詳覈, 或是古而非今, 或捨故而取新, 其或諸說, 皆未當意者, 時附已見, 餘竝闕疑, 以遵夫子之戒. ……”

중시한 면모가 보인다. 또한 『사기』, 『설문』에 실린 『상서』 문구와 대조하였고, 『훈추좌씨전』·『국어』·『예기』·『논어』·『맹자』에 『상서』를 인용한 내용이 있으면 또한 채록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서지원록』에서는 『고훈수략』에서 채집한 훈고 자료들을 매색이나 채침의 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상서고훈지원록합편서설」과 「상서고훈범례」의 내용이다.

..... 이어서 복생의 집 벽에서 나온 진본 28편에서 돌이켜 살피고, 구양생·하후씨·마응·정현의 설을 수집한 것이 『고훈수략』이다. 이어서 매색·채침 두 사람의 설을 古訓과 비교하고 간간이 내 의견을 덧붙인 것이 『상서지원록』이다. 그러나 이 삼부작은 모두 유배지에서 편찬하였기 때문에 서적이 적어서 빠트린 것이 매우 많았다. 또 가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 고기의 참맛을 본 것처럼 잘난척 스스로 기뻐하면서 辨訟하였는데, 그 어투가 매우 거칠고 공손하지 못하였다. 이제 24년이나 지났는데, 책을 펼쳐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여 언행에 소양이 없었음을 후회하게 된다. 내가 지은 육경과 사서에 관한 설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상서』에 관한 설이 가장 심하다. 『상서지원록』을 조목조목 나누어 『고훈수략』에 붙여넣고 합쳐서 한 책으로 만들었다. 그 가운데 근거 없는 소리와 어그러진 말은 대략 없었으나 심하지 않은 것은 간혹 그대로 두기도 하였으니, 이는 뒷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책을 합한 것인데도 제목을 그대로 『상서고훈』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설을 덧붙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고훈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36)

36) 같은 곳,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 “繼而反求乎壁中眞本二十八篇, 蒐輯歐陽夏侯馬鄭之說者曰古訓蒐略. 繼而執梅蔡二家之說, 校比乎古訓, 間附以己見者曰知遠錄. 顧此三部, 皆於謫中編纂, 書籍旣少, 遺漏甚多. 且新得一鱗之味, 沾沾自喜所辨訟, 其辭氣多暴慢不恭. 如今二十有四年矣, 每一披閱, 愧焉內疚, 恤焉自傷, 悼言行之無素也. 所著六經四書之說, 無不然者, 其尤甚者書說也. 乃取知遠之錄, 條條摺裂, 附入于古訓之編, 合爲一部, 而其浮辭諄言, 概行鋤拔, 其或未甚, 間亦存之, 俾後人知余之爲如是人而已. 書雖兩合, 仍名之曰尙書古訓, 蓋新說雖附, 猶以古訓爲主也.”

다섯째, 무릇 古訓을 『尙書正義』에서 채록한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경의 주소나 다른 책에 수록된 여러 사람의 설에서 취한 경우에는 모두 출처를 주로 달았다.

여섯째, 『상서고훈』은 결락된 채 남아 있는 현대 유자들의 글만을 모은 것이고, 『상서지원록』은 매색과 채침의 풀이를 함께 논한 것이다. 지금 이미 합편하는 이상 또 근세 유자들의 설 가운데 채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수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간혹 내가 따로 입론한 것을 덧붙여 둔 것 또한 많다.³⁷⁾

다산은 「상서고훈지원록합편서설」에서 유배기 때 저술한 저술이 가지는 자료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의 立論이 거칠었음을 고백하였다. 이어서 『상서지원록』과 『고훈수략』을 합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 한 책으로 만들어서 옛 저술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상서고훈범례」에는 책을 쓴 원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출처 표기에 대해서는 『尙書正義』의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자료는 모두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근세 유자들의 설 가운데 채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수록하였으며, 스스로 입론을 덧붙인 부분 역시 많다고 하였다.

2) 『尙書古訓』의 훈고학 방법론

이상에서 살펴본 다산의 자료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상서』 「요전」 1장을 대상으로 『고훈수략』, 『상서지원록』과 『상서고훈』의 내용을 대조해 보겠다. 우선 세 저술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⁸⁾

37) 같은 곳, 「尙書古訓凡例」, “一, 凡古訓之採於本經之正義者, 不標其所出, 其取之於他經注疏他書雜家者, 皆注所出. 一, 尙書古訓, 但輯漢儒之零文, 知遠錄, 兼論梅蔡之義. 今既合編, 又或近世儒說有可采錄者, 不免濫觴, 或另自立論者, 亦多附見.”

38) 『고훈수략』의 내용이 『상서고훈』에 수록된 경우 밑줄로 표시하였고, 『상서지원

『고훈수략』	『상서지원록』	『상서고훈』
<p>堯典 馬云：“堯，諡也。翼善傳聖曰堯。” ○說文云：“典，五帝之書也。從冊在丌上，尊閣之也。” 序曰：“昔在帝堯，聰明文思，光宅天下，將遜于位，讓于虞舜，作「堯典。」【『正義』云：“此序，鄭玄·馬融·王肅竝云孔子所作。”鄭云：“『書』以堯爲始，獨於昔在，使若無先之典然也。”○又云舜之美事，在於堯時。○鏞案，今之舜典(慎微五典以下)，亦本「堯典」。故序文如此。39)】</p>	<p>堯典 ○曰若稽古【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 ○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敘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蔡說，是也。然讀至帝堯絕句，猶夫未然，何者？詞例至「皐陶謨」而不通也。曰若稽古者，猶今之臣謹案，當於是絕句。【毛大可亦云】餘見前。【上己六】</p>	<p>堯典 馬融云：“堯，諡也。翼善傳聖曰堯。”【朱子曰：“死諡，周道也。『史』云，‘夏商以上，無諡，以其號爲諡。’又云，‘堯字，從三土，高也。’”】 ○許慎云：“典，五帝之書也。從冊在丌上，尊閣之也。” ○鏞案『春秋傳』：【昭十二】“楚左史倚相，能讀『三墳』『五典。』”即三皇五帝之書也。今唯此一典存。</p>
<p>曰若至上下【史云帝堯者放勳】 曰若稽古【『正義』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p>	<p>曰若稽古。【句】帝堯曰放勳。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本紀』，動爲勳。】 【『說文』同】『說文』，格爲假，『緯書』，思爲塞。【曰若稽古】疏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若，順也。】 ○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 ○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敘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錢時【南宋人】云：“曰若稽古爲句，是後代追敘之辭。”</p>	

록의 내용이 『상서고훈』에 수록된 경우 기울임으로 표시하였다.
39) 해당 부분은 『상서고훈』의 「尙書序-堯典」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p>○鏞案 蔡說，是也。然讀至帝堯絕句，猶夫未然，何者？詞例至「臯陶謨」而不通也。‘曰若稽古者，夏史之筆【如今云臣謹按】，考古之典籍也。【毛大可亦云】顧炎武謂「堯典」亦夏書者，以此。【金履祥云：“若稽，追記之辭。放，大也。”】考訂 賈誼『新書』引帝堯曰：“吾存心於先古【案，此以稽古為堯德】，加志於窮民。”</p> <p>○『史記』，武帝立燕王，策曰：“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褚先生曰：“稽者，當也。當順古之道也。”】</p> <p>○『漢書律曆志』云：“自伏羲畫卦，至黃帝堯舜而大備，三代稽古，法度章焉。”【此亦以稽古為堯事】</p> <p>○魏高貴鄉公曰：“稽，同也。古，天也。謂堯能同天。”【此鄭玄之義】</p> <p>○鏞案 偽註順考古道之解，遠自西京，其源遠矣。偽者深信其義，既於此註之如此，又撰『周官』之經，儼稱唐虞稽古，建官維百，則堯舜二帝，遂為稽古之主，不可辭矣。</p>
放勳【馬云：“放勳，堯名。”】		<p>【曰放勳】馬云：“放勳，堯名。”</p> <p>○梅云：“堯放上世之功化。”【放，仿也。】</p> <p>蔡云：“放，至也。功大而無所不至。”</p>

		<p>○皇甫謐云：“放勳，堯名，一云堯字。”</p> <p>○鏞案 當時之人，皆二字名，玄謂·昌意·橋玄·窮蟬·敬唐·句望之等，皆二字名。又如蒼舒·隕豷·禱戴·大臨·尫降·庭堅</p> <p>【『左傳』文十八，杜云：‘此垂·益·禹·皋陶之倫。’】之等，亦二字名。唯光顯者，多一字名。如譽·摯·堯·舜·禹·益·鯀·夔·龍·垂·棄之等，是也。唯皋陶·庭堅兩名，皆二字。又如仲容·仲達【亦八愷之二】·伯奮·仲堪·叔獻·季仲·伯虎·仲熊·叔豹·季狸之等【即八元，文十八。】，又似後世伯·仲爲字之法。又如丹朱·商均，皆二字名，而亦呼其一字曰胤子朱，今不可詳。要之，放勳·重華·文命，皆其二字名。堯·舜·禹，其一字名。或如後世之有小名·冠名，未必是謚號也。</p>
<p>欽明文思【馬云：“威儀表備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道德純備謂之思。”</p> <p>○鄭云：“敬事節用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慮深通敏謂之思。”】</p>		<p>【欽明文思】馬云：“威儀表備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道德純備謂之思。”</p> <p>○鄭云：“敬事節用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慮深通敏謂之思。”</p> <p>○鏞案 兩義皆出謚法，未必然。</p>
<p>允恭克讓【鄭云：“不懈於位曰恭，推賢尚善曰讓。”</p> <p>光被四表【鄭云：“言堯德光</p>		<p>【安安】『緯書』作晏晏，【『考靈耀』鄭註云：“寬容覆載，謂之晏晏。”</p>

<p>耀。及四海之外，至於天地，所謂大人與天地合其德，與日月齊其明。”見「周頌·噫嘻疏」</p> <p>『緯書』安安作晏晏。【『考靈耀』鄭註云：“寬容覆載，謂之晏晏。”○馮衍「顯志賦」云：“思唐·虞之晏晏。”第五倫上疏云：“體晏晏之姿。”】</p>		<p>○馮衍「顯志賦」云：“思唐·虞之晏晏。”【第五倫上疏云：“體晏晏之姿。”】</p> <p>【允恭克讓】鄭云：“不懈於位曰恭，推賢尚善曰讓。”</p> <p>○蔡云：“允，信。克，能也。”</p> <p>○鑄案 恭易偽，而讓難遂，故曰允，曰克。</p> <p>【光被四表】鄭云：“堯德光耀，及四海之外，至於天地，所謂大人與天地合其德，與日月齊其明。”【見「周頌·噫嘻疏」】</p>
<p>○『說文』：“格，作假。”</p>	<p>下甲二 格于上下【梅云：“至于天地。”○蔡云：“格至上天下地。”】</p> <p>上者天也，下者民也。蔡於「皐陶謨」達于上下節，訓之曰‘上天下民’，於此不得異釋也。得天下之歡心，以事上帝者，二帝三王之大義，不可沒也。格者，孚感也。</p>	<p>【格于上下】梅云：“至于天地。”【蔡說同】</p> <p>○案 四表上下，以為六合。故自鄭然矣。竊謂，上者天也，下者民也。蔡於「皐陶謨」達于上下節，訓之曰‘上天下民’，此不可異釋也。格者，孚感也。</p>

앞부분에 ‘堯典’에 대한 훈고가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요전」 1장에 대한 훈고가 제시되어 있는데,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으로 합편하는 과정에서 다산이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에 수록된 훈고를 『상서』 원문의 순서별로 재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堯典’의 훈고에 대한 『고훈수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馬云：“堯，諡也。翼善傳聖曰堯。”

○說文云：“典，五帝之書也。從冊在丌上，尊閣之也。”

『고훈수략』에서 다산은 ‘堯’에 대한 마옹의 훈고와 ‘典’에 대한 『설문』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馬融云：“堯，諡也。翼善傳聖曰堯。”【朱子曰：“死諡，周道也。『史』云，‘夏商以上，無諡，以其號爲諡。’又云，‘堯字，從三土，高也。’”】

○許慎云：“典，五帝之書也。從冊在丌上，尊閣之也。”

○鑄案『春秋傳』：【昭十二】“楚左史倚相，能讀『三墳』·『五典』。”卽三皇·五帝之書也。今唯此一典存。

다산은 ‘堯’에 대한 마옹의 훈고 다음에 朱子の 설을 덧붙여 수록하였다. 주자의 설은 『禮記』 ‘檀弓’의 “죽으면 시호로 부르는 것은 周나라의 도이다.[死諡，周道也.]”에 대한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堯는 시호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⁴⁰⁾ 주자는 堯, 舜, 禹는 이름일 뿐이지 시호가 아니라고 하였고, 그 근거로 우선 하나라와 은나라 때에는 지금의 시호법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堯, 舜, 禹의 뜻을 풀이하며 이러한 뜻을 시호로 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며, 미천할 때 불렀던 이름을 죽은 뒤에 시호로 삼을 이치 또한 없다고 하였다.

『고훈수략』에서는 마옹의 훈고만 실어놓았지만, 『상서고훈』에서 마옹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자의 설을 덧붙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다산은 따로 견해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뒷부분에서 堯를 시호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주자의 설과 일치하는 주장을 펼쳤다.

‘典’에 대해서는 『고훈수략』과 마찬가지로 『설문』의 내용을 전재하였

40) 해당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朱子語類』卷87, “死諡周道也。史云夏商以上無諡，以其號爲諡，如堯舜禹之類，看來堯舜禹爲諡也，無意義。堯字從三土，如土之堯然而高，舜只是花名，所謂顏如舜華之舜。禹者獸跡，今篆文禹字，如獸之跡。若死而以此爲諡號也，無意義。況虞舜側微時，已云有鰥在下曰虞舜，則不得爲死而後加之諡號矣。看來堯舜禹，只是名非號也。”

다. 이어서 案說을 덧붙여서 「요전」이 『춘추좌씨전』의 기록에 나오는 『三墳』·『五典』 중 하나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요전」 1장의 원문에 대한 훈고가 나온다. 「요전」 1장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曰若稽古，帝堯曰放勳，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

우선 ‘曰若稽古’에 대한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의 내용이다.

『고훈수략』

曰若至上下 【史云帝堯者放勳】

曰若稽古 【『正義』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

『상서지원록』

「堯典」○曰若稽古 【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叙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蔡說，是也。然讀至帝堯絕句，猶夫未然，何者？詞例至「皐陶謨」而不通也。‘曰若稽古’者，猶今之臣謹案，當於是絕句。【毛大可亦云】餘見前。

『고훈수략』에는 帝堯에 대한 『사기』의 기록과 정현의 해석이 채록되어 있다. 『상서지원록』에는 매색과 채침의 설이 실려있는데, 채침의 설은 정현의 해석과 다르다. 이어서 다산은 채침의 설을 옹호하는 동시에 ‘帝堯’까지 絕句한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고, 모기령 역시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曰若稽古。【句】帝堯曰放勳。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本紀』，勳爲勛。(『說文』同)『說文』，格爲假。『緯書』，思爲塞。】

【曰若稽古】疏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若，順也。】

○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

○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敘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錢時【南宋人】云：“曰若稽古爲句，是後代追敘之辭。”

○鏞案 蔡說，是也。然讀至帝堯絕句，猶夫未然，何者？詞例至「皐陶謨」而不通也。‘曰若稽古’者，夏史之筆【如今云‘臣謹按’】，考古之典籍也。

【毛大可亦云】顧炎武謂「堯典」亦夏書者，以此。【金履祥云：“若稽，追記之辭。放，大也。”】

考訂 賈誼『新書』引帝堯曰：“吾存心於先古【案，此以稽古爲堯德。】，加志於窮民。”

○『史記』，武帝立燕王，策曰：“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稽先生曰：“稽者，當也。當順古之道也。”】

○『漢書·律曆志』云：“自伏羲畫卦，至黃帝·堯·舜而大備，三代稽古，法度章焉。”【此亦以稽古爲堯事】

○魏高貴鄉公曰：“稽，同也。古，天也。謂堯能同天。”【此鄭玄之義】

○鏞案 偽註‘順考古道’之解，遠自西京，其源遠矣。偽者深信其義，既於此註之如此。又撰‘周官’之經，儼稱‘唐·虞稽古，建官維百’，則堯·舜二帝，遂爲稽古之主，不可辭矣。

『상서고훈』에는 우선 「요건」 1장의 전체 원문이 제시되어 있고, '曰若稽古'에서 斷句해야 함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의 정현, 매색, 채침의 주석을 그대로 실어놓았으며, '曰若稽古'에서 斷句해야 한다고 한 南宋 錢時的 견해를 추가로 삼입하였다. 안설 부분에 顧炎武의 『日知錄』 내용을 실어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였으며, 金履祥의 설도 덧붙였다.

考訂 부분에서는 ‘稽古’를 堯德이나 堯事로 본 훈고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안설을 달아 評하였다. 이 부분에서 古訓이 틀렸다고 해서 이를 폐기하지 않고 수록한 다음 이러한 古훈이 나온 이유에 대해 분석한 다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帝堯曰放勳’에 대한 『고훈수략』의 내용이다.

放勳【馬云：“放勳，堯名。”】

‘放勳’에 대한 마옹의 훈고가 제시되어 있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曰放勳】馬云：“放勳，堯名。”

○梅云：“堯放上世之功化。”【放，仿也。】

蔡云：“放，至也。功大而無所不至。”

○皇甫謐云：“放勳，堯名。一云堯字。”

○鏞案 當時之人，皆二字名，玄囂·昌意·橋玄·窮蟬·敬唐·句望之等，皆二字名。又如蒼舒·隕鼓·禱戴·大臨·尨降·庭堅【『左傳』文十八，杜云：‘此垂·益·禹·皐陶之倫。’】之等，亦二字名。唯光顯者，多一字名，如嚳·摯·堯·舜·禹·益·鯨·夔·龍·垂·棄之等，是也。唯皐陶·庭堅兩名，皆二字。又如仲容·仲達【亦八愷之二】·伯奮·仲堪·叔獻·季仲·伯虎·仲熊·叔豹·季狸之等【即八元，文十八。】，又似後世伯·仲爲字之法。又如丹朱·商均，皆二字名，而亦呼其一字曰胤子朱，今不可詳。要之，放勳·重華·文命，皆其二字名。堯·舜·禹，其一字名，或如後世之有小名冠名，未必是謚號也。

다산은 『상서고훈』에서 마옹의 훈고 다음에 매색, 채침의 주석과 皇甫謐의 설을 함께 제시하고, 자신의 안설을 남겼다. 안설에서는 ‘放勳’은 堯의 두 글자 이름이고, ‘堯’는 한 글자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춘추좌씨』

전』의 비슷한 사례들을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반드시 시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앞부분의 '堯'에 대한 마옹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다산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제시된 주자의 설과 일치한다.

해당 부분은 다산 훈고학 방법론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산은 앞의 '堯'에 대한 훈고에서 『고훈수략』에 수록했던 훈고자료에 반하는 주자의 설을 『상서고훈』에 새로 수록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추가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며 이를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편찬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를 『상서고훈』에서 보완하며 기존 훈고의 오류를 반박한 것이다.

또한 다산은 자신의 안설을 앞의 '堯'에 대한 훈고에서 제시하지 않고, '放勳'에 대한 훈고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堯'가 한 글자 이름이고 '放勳'이 두 글자 이름이라는 것을 함께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배치를 통해 자신의 立論에 설득력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欽明文思'에 대한 『고훈수략』의 내용이다.

欽明文思 【馬云：“威儀表備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道德純備謂之思。”○鄭云：“敬事節用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慮深通敏謂之思。”】

'欽', '明', '文', '思' 각각에 대한 마옹과 정현의 훈고가 제시되어 있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欽明文思】馬云：“威儀表備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道德純備謂之思。”

○鄭云：“敬事節用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慮深通敏謂之思。”

○鏞案 兩義皆出諡法, 未必然.

기존 『고훈수략』의 내용에 다산의 안설이 추가되어 있다. 마옹과 정현의 풀이가 모두 諡法에서 나왔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에 대한 『고훈수략』의 내용이다.

允恭克讓 【鄭云: “不懈於位曰恭, 推賢尙善曰讓.”】

光被四表 【鄭云: “言堯德光耀, 及四海之外, 至於天地, 所謂大人與天地合其德, 與日月齊其明.”見「周頌·噫嘻」疏】

『緯書』安安作晏晏. 【「考靈耀」鄭註云: “寬容覆載, 謂之晏晏.” ○馮衍「顯志賦」云: “思唐·虞之晏晏.” 第五倫上疏云: “體晏晏之姿.”】

'允恭克讓', '光被四表', '安安'의 순서로 정현의 훈고가 제시되어 있고, '安安' 부분에는 後漢 馮衍의 훈고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安】『緯書』作晏晏. 【「考靈耀」鄭註云: “寬容覆載, 謂之晏晏.”】

○馮衍「顯志賦」云: “思唐·虞之晏晏.” 【第五倫上疏云: “體晏晏之姿.”】

【允恭克讓】鄭云: “不懈於位曰恭, 推賢尙善曰讓.”

○蔡云: “允, 信. 克, 能也.”

○鏞案 恭易僞, 而讓難遂. 故曰允, 曰克.

【光被四表】鄭云: “堯德光耀, 及四海之外, 至於天地, 所謂大人與天地合其德, 與日月齊其明.” 【見「周頌·噫嘻」疏】

『상서고훈』에는 원문의 차례대로 '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의 순서로 재배치되어 있다. '安安'과 '光被四表' 부분은 『고훈수략』의 내용과 일치한다. '允恭克讓' 부분에는 채침의 주석이 추가되어 있고, 안설에서 다

산은 채침의 설에 대해 보충설명하였다.

다음으로 '格于上下'에 대한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의 내용이다.

『고훈수략』

○『說文』：“格，作假。”

『상서지원록』

格于上下 【梅云：“至于天地。”○蔡云：“格至上天下地。”】

上者天也，下者民也。蔡於「皐陶謨」‘達于上下’節，訓之曰‘上天下民’，於此不得異釋也。得天下之歡心，以事上帝者，二帝三王之大義，不可沒也。格者，孚感也。

『고훈수략』에는 '格'에 대한 『설문』의 훈고가 제시되어 있고, 『상서지원록』에는 매색과 채침의 훈고, 그리고 다산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다산은 上下를 하늘과 백성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채침 역시 「고요모」의 주석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했다고 실증하며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格'은 '정성이 감통하는 것〔孚感〕'이라는 새로운 훈고를 제시하였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格于上下】梅云：“至于天地。”【蔡說同】

○案 四表上下，以爲六合。故自鄭然矣。竊謂，上者天也，下者民也。蔡於「皐陶謨」‘達于上下’節，訓之曰‘上天下民’，此不可異釋也。格者，孚感也。

『상서고훈』에는 다산이 정현 이하 기존의 훈고학자들이 上下를 四海로 해석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古訓을 존중한 다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고훈수략』,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과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방식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훈고학이란 넓은 의미로는 어느 시대에나 사용되었던 경전해석 방법론이기도 하면서 좁은 의미로는 漢代의 학술 경향인 훈고학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다산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겸해서 사용하면서도 좁은 의미로의 한대 훈고학에만 치우친 당시 훈고학의 경향을 비판하였다. 또한 훈고학의 두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였는데, 첫째, 한대에 전수한 훈고가 본래의 뜻이라고 기필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본의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글자 뜻풀이와 자구의 해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의식 위에서 성립된 다산의 『상서』 훈고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다산은 기본적으로 古訓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역시 견지하고 있었다. 『상서』 훈고 작업의 목적은 '存古'임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를 통해 옛것을 바르게 알고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다산은 『상서고훈』 合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요전」 1장을 대상으로 합본 과정에서 보이는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다.

원문의 순서에 맞게 재배치 한 부분, 斷句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표시한 부분, 서명 표시를 확실히 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기존 저

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부분이다.

새로운 학설을 추가로 제시한 부분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案說 부분에 顧炎武의 『日知錄』 내용을 실어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가장 주목된 부분은 古訓의 오류에 대해 분석한 부분이다. 다산은 鄭玄이나 다른 한대 훈고학자들의 주석 가운데 본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빼지 않고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고훈의 증거력이 부족하더라도 고훈인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다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여러 글에서 다산이 강조했던 存古의 원칙과 일치한다.

『고훈수략』에 수록했던 훈고자료에 반하는 설을 『상서고훈』에 새로 수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한 부분 역시 확인하였다. 다산은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편찬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를 『상서고훈』에서 보완하며 기존 훈고의 오류를 반박하였는데, 여기서 여러 훈고를 취사한 자료운용의 실제 면모가 드러난다. 해당 부분에서 다산은 본인의 案說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立論에 설득력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1. 원전

『尙書』

『朱子語類』

『尙書古訓』, 규장각본.

『尙書知遠錄』, 규장각본.

『與猶堂全書 補遺』, 경인문화사, 1969.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 단행본

곽재이 지음, 이종진·이홍진 옮김(2012), 『훈고학 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벤자민 엘먼 지음, 양휘웅 옮김(2004),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전광진 編譯(1993), 『中國文字訓詁學辭典』, 東文選.

周大璞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1997),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정약용 지음,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2020-2022),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1-5』, 학자원.

3. 논문

김문식(2007), 「『상서지원록』 필사본의 원문 비교」, 『다산학』 10, 다산학술문화재단.

김문식(2013), 「다산 정약용의 『尙書』 주석서 계열 고찰」, 『다산학』 23, 다산학술문화재단.

김성재(2018), 「정약용 『상서고훈』의 구성 체제와 案說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48, 한국학연구소.

김성재(2021), 「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다산학술문화재단.

김보름(2021),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유학연구소.

김소영(2019), 「丁茶山の 『孟子要義』 訓詁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연중(2012), 「茶山の 經學 그 大略과 意義」, 『한국한문학연구』 50, 한국한문학회.

박상재(2002), 「茶山 經學의 訓詁學的 性格 研究」,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경호(1991), 「다산 상서론에 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심경호(2012), 「다산 정약용의 문헌해석방법과 필롤로지」, 『다산학』 21, 다산학술문화재단.

양원석(2007), 「朝鮮 後期 文字訓詁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현규(2015), 「다산의 『서경』 인식」, 『동양고전연구』 59, 동양고전학회.

정병련(2000), 「『梅氏書平』의 考據學的 분석구조론」, 『다산학』 1, 다산학술문화재단.

단.

진역령(2016), 「『古文尙書』에 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인식과 고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평린(2005), 「茶山の 考據學에 관한 試論」, 『다산학』 6, 다산학술문화재단.

A Philological Approach of Dasan(茶山)'s 『Sangseokohun(尙書古訓)』

Byeon, Eun Mi *

『Sangseokohun(尙書古訓)』 is known to be the work that Dasan Jeong Yak-yong(1762-1836) has worked on for the longest time, and is also known that Dasan could not let go until the last moment of his life and continued to revise it. Dasan wrote his early three-part 『Sangseo(尙書)』 studies, 『Maessiseopyong(梅氏書平)』·『Kohunsuryak(古訓蒐略)』·『Sangseojiwonnok(尙書知遠錄)』 in his exile period, and after the exile period, he renovated 『Maessiseopyong』 and completed 『Sangseokohun(尙書古訓)』, combining 『Kohunsuryak』 and 『Sangseojiwonnok』.

This study examines Dasan's philological approach and its characteristics by contrasting 『Kohunsuryak』 and 『Sangseojiwonnok』 with 『Sangseokohun』.

Dasan basically had an attitude of emphasizing 'kohun(古訓)', while also maintaining a critical position on this. Dasan revealed that the purpose of studying 『Sangseo』 is 'jonko(存古)', and through this, he made it his ultimate goal to know the old correctly and apply it to the current situation.

Dasan did not exclude any commentaries of Jeonghyun(鄭玄) or other Han Dynasty(漢代)'s scholars even if there's something different from his opinions, and presented his analysis. The part that supplemented the new theory and refuted the errors of 'kohun' was also confirmed.

* Doctor's cours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E-mail: di0567@hanmail.net

Key Words

Jeong Yak-yong, 『Sangseo(尙書)』, 『Yojeon(堯典)』, 『Sangseokohun(尙書古訓)』, philology.

논문접수일: 2022. 11. 13, 심사완료일: 2022. 12. 26, 게재확정일: 2022. 12. 30

『詩名多識』 연구 및 학술적 가치 평가

— 『六家詩名物疏』, 『詩物名考』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高爭爭*

-
1. 서론
 2. 『詩經』 物名學의 발전 과정
 3. 『詩名多識』과 其他 『詩經』 物名學 작품의 체재 비교
 4. 『詩名多識』과 其他 『詩經』 物名學 작품의 내용 비교
 5. 결론
-

■ 국문요약

『詩名多識』은 한국 『詩經』 物名學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대유학자 정약용의 차남 丁學游는 『毛詩』를 학습하며 『詩名多識』이라는 『詩經』 物名學 저작을 완성했다. 『詩名多識』은 조선 시대 몇 되지 않는 『詩經』 物名學 전문 연구 저서 중 하나로, 역대 저명한 物名 훈고 문헌들을 인용하여 物名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였다.

본문에서는 『詩名多識』과 馮復京의 『六家詩名物疏』, 柳僖의 『詩物名考』 등 『詩經』 物名學 저작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내용과 체재 두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 및 연구를 진행하여, 『詩名多識』의 특징과 그가 지닌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생,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 E-mail: myboss2016@163.com

주제어: 『詩經』物名學, 『詩經』學史, 『詩名多識』, 丁學游, 『六家詩名物疏』, 馮復京, 『詩物名考』, 柳僖

1. 서론

한국의 경학 문헌 『詩名多識』은 대 유학자 정약용의 차남 丁學游의 작품이다.¹⁾ 이 책의 「序」에 따르면, 丁學游가 스무살이 되던 해 봄에 『毛詩』를 읽고 필기를 했는데, 이를 작품으로 펴낸 것이 바로 『詩名多識』이다.²⁾ 『詩名多識』은 『詩經』物名學의 불모지에 가깝던 조선 문단에 단비처럼 나타난 『詩經』物名學 전문 저작이다.

먼저 조선 시대에 편찬된 物名學 관련 저작을 살펴보면, 『詩經諺解』권1 “物名”, 柳僖의 『物名考』³⁾와 『詩物名考』,⁴⁾ 申綽의 『鳥獸蟲魚草木名』 그리고 丁學游의 『詩名多識』 등이 있다. 그 중, 『詩經諺解』를 제외한 대부분의 物名學 저작들이 英祖와 正祖 시기에 편찬되었고, 柳僖의 『詩物名考』와 丁學游의 『詩名多識』만이 『詩經』物名學 전문 저작에 속한다.⁵⁾

학계에 이미 柳僖와 申綽의 物名學 저작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丁學游의 『詩名多識』에 관한

1) 丁學游, 『詩名多識』, 韓國經學資料集成81, 成均館大學出版部, 1989.

2) 丁學游, 『詩名多識』, 韓國經學資料集成81, 成均館大學出版部, 1989. “어느 봄날, 나의 아우 遲襲千가 『毛詩』를 읽는다고 하였는데, 하루는 『詩名多識』 네 권을 가져와序를 써달라고 청하였다.”

3) 柳僖, 『物名攷』, 景文社, 1975.

4) 柳僖,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資料集·詩物名考』, 韓國語文教育硏究會, 2000.

5) 서울 대학교 소장 필사본이 현존하는 유일한 판본이다. 고려대학교에 본 판본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연구는 많지 않다. 심경호 선생은 『한국 한문 기초학사』에서 詩名多識을 “『詩經』物名류” 저작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丁學游의 『詩名多識』은 조선 시대 申緯 『鳥獸蟲魚草木名』의 뒤를 이어 名物을 정리했으며, 더 나아가 전문성을 지닌 명작이다.”⁶⁾ 詩名多識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김형태의 “『詩名多識』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가 있다.⁷⁾ 이 논문에서는 주로 문헌학과 판본학의 관점에서 『詩名多識』의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판본, 동경대학교의 소창 문고 판본, 버클리대학교의 아사미 문고 판본 등, 3가지 판본을 비교 연구하였고, 각 판본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외에, 이 서적의 한국어 校注本이 이미 출판되었는데,⁸⁾ 권 말 부분에 丁學游가 『詩名多識』에서 인용한 역대 작품들 및 상관 인물들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⁹⁾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 시대 『詩經』 학사 연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物名學에 대하여 논한 작품, 특히 丁學游의 『詩名多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고에서는 丁學游 『詩名多識』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중한 『詩經』 物名學 전문 저작들과 비교 연구하기로 한다.

2. 『詩經』 物名學의 발전 과정

『詩經』 物名學의 시초는 오랜 세월을 거슬러 孔夫子 시대까지 거슬러

6)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2)』, 태학사, 2012.

7) 김형태, “『詩名多識』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1)”, 韓國詩歌研究, 제21집.

8) 허경진 김형태 옮김, 『詩名多識』, 한길사, 2007.

9) 이 서적에는 오류가 있다. 687쪽 『六家詩名物疏』 부분에, 『詩名多識』이 『六家詩名物疏』를 참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본 논문의 집필을 시작하였고, 『詩名多識』이 『六家詩名物疏』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것이라 여겼으나, 이후 김수경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고증하는 과정에서 두 작품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詩名多識』에 실린 원문은 “六疏”가 아닌 “陸疏”이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듯하다.

올라가 비로소 찾을 수 있다.¹⁰⁾ 공자는 일상에서 『詩經』을 가르칠 때부터 名物 지식의 축적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 때 이루어진 대량의 『詩經』 注疏로 보아, 대 유학자들 모두 기본적으로 “隨文注疏”, 즉 物名을 단독으로 분류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詩經』 원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物名 해석을 겸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詩經』에 등장하는 조·수·충·어(鳥·獸·蟲·魚) 등의 名物들을 따로 분류하여 정리하지는 않았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詩經』학사상 최초의 物名 서적은 삼국시대에 등장했는데, 바로 삼국시대 오나라의 陸璣가 쓴 『毛詩草木鳥獸蟲魚疏』(이하 陸璣『疏』)이다. 이후에 나온 『詩經』 物名 서적들은 대부분 이 책의 내용과 체계를 참고하여 쓰여졌다.¹¹⁾ 陸璣『疏』 이후, 주목할만한 저작들로는 송대 蔡卞의 『毛詩名物解』, 명대 馮復京의 『詩六家名物疏』가 있다. 馮復京의 『六家詩名物疏』는 『詩經』의 편장 순서에 따라 『詩經』에 나타난 物名을 차례로 정리하였다. 馮復京의 『六家詩名物疏』는 본문 서술에 앞서 『提要』를 작성하고, 그 후 物名을 32가지로 보다 세분화하였는데, 약 1,300가지 物名이 등장한다.¹²⁾ 이러한 편찬 체제를 통해 馮復京의 『六家詩名物疏』가 陸璣의 『疏』와 송대 蔡卞의 작품을 바탕으로 보강 및 정리하여 편찬된 작품임을 유추할 수 있다.

馮復京『六家詩名物疏』의 뒤를 이어, 청대 강희년간에 姚炳이¹³⁾ 『詩

10) 十三經著述編委會, 『論語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詩經』을 공부하지 않느냐.....(시를 통하여) 가까이 있는 아버를 섬기며, 멀리 있는 임금을 섬기고, 새와 짐승과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될 것이다.

11) 郝桂敏, “陸璣『毛詩草木鳥獸蟲魚疏』有關問題研究”, 鹽城師範學院學報, 2011.

12) 釋天, 釋神, 釋時序, 釋地, 釋國色, 釋山, 釋水, 釋體, 釋親屬, 釋姓, 釋爵位, 釋飲食, 釋服飾, 釋室, 釋器, 釋布帛, 釋寶五, 釋禮, 釋樂, 釋兵, 釋舟車, 釋色, 釋藝業, 釋夷, 釋獸, 釋鳥, 釋鱗介, 釋蟲, 釋術, 釋谷, 釋草, 釋雜物.

13) 사고관신에 의하면, 본 서적의 제목은 공자가 「陽貨」 편에서 언급한 “多識於鳥獸草木”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識”자를 빌려 제목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識”은 “多識

識名解』를 써냈는데, 이는 物名을 고작 “釋鳥”, “釋獸”, “釋草”, “釋木” 등 네 부류로 나누었고, 내용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¹⁴⁾ 그 외, 徐鼎의 『毛詩名物圖說』 한 부가 있으나, 역시 馮復京의 내용에 삽화를 추가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馮復京의 『六家詩名物疏』를 『詩經』 物名學의 집대성이라고 칭한다.¹⁵⁾

위의 작품들은 중국 고대 『詩經』 物名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시되는 저작들이다. 陸璣 『疏』부터 姚炳 『詩識名解』에 이르기까지, 역대 저작들을 통해 중국 『詩經』 학사상 物名學 작품의 체재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다. 먼저, 학자들은 모두 『詩經』의 物名을 隨文注疏 했고, 다음으로 각 편의 시에 실린 物名の 수를 정리 및 구분하여 주해했으며, 마지막으로 『詩經』 전편의 物名을 분류하여 주해했다. 그러나 학자들의 분류법과 인용한 문헌 학설이 상이하다.

다음으로 한국 경학사를 종합해보면, 『詩經』 연구는 그 역사가 유구하다. 그러나 『詩經』의 物名 주해는 긴 시간을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隨文注疏의 방법을 채택했고, 17세기까지도 『詩經』 物名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저작은 찾아볼 수 없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간행한 『詩經諺解』 서두 부분에 “物名”이라고 제목을 붙인 부분이 있는데, 최초로 『詩經』 物名에 대하여 분류 및 정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詩經諺解』는 物名에 대한 통계와 해석이 충분하지 않고, 단행본이 없기 때문에, 『詩經』 物名學 작품의 시조 격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문적인 연구는 아니다. 이후 申綽의 『鳥獸蟲魚草木名』과 柳僖의 『物名攷』 등이 탄생했으나, 『詩經』 物名學 저작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어 柳僖가 『詩物名考』를 편

을 의미한다.

14)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海南出版社, 1999. “본 저작은 명물을 鳥獸草木 네 부류로 분류하였으니, 이에 多識이라 명하였다.”

15) 馮復京, 『詩經要籍集成·六家詩名物疏』, 제19·20책, 學苑出版社, 2002.

찬했는데, 『詩經諺解』의 단점을 보완하여 펴낸 최초의 『詩經』物名學 전문 저작이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가장 완성도 높은 丁學游의 『詩名多識』이 탄생하였다.

현존하는 物名學 관련 문헌 중, 앞서 언급한 한국 『詩經』物名學 저작인 『詩經諺解』 권1 “物名”은 전문 저작이라고 할 수 없고, 申綽의 『鳥獸蟲魚草木名』과 柳僖의 『物名攷』는 시경학 범위에 속하지 않는 物名學 저작이므로, 본문의 주요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중한 시경 物名學 전문 저작인 馮復京 『六家詩名物疏』와 柳僖의 『詩物名考』 그리고 丁學游의 작품을 비교 연구하여, 丁學游 『詩名多識』의 학술적 특색과 가치를 가늠해보려 한다.

3. 『詩名多識』과 其他 『詩經』物名學 작품의 체재 비교

본 장에서는 『詩名多識』과 『詩物名考』, 『六家詩名物疏』의 체재를 비교 연구해보려고 한다. 먼저 『詩名多識』과 『詩物名考』의 비교를 진행하는데, 柳僖 『詩物名考』의 기본 저작 체재는 『詩經諺解』와 동일하다. 柳僖가 序文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저작은 『諺解』物名 부분의 착오를 교정하여 탄생하였다.¹⁶⁾ 그러므로, 『詩經諺解』의 체재도 함께 언급한다.

『詩物名考』는 『詩經諺解』의 物名 부분과 같이 편장의 순서에 따라 物名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詩經諺解』의 본문 第一卷은 「周南」 11편과 「召南」이다. 「周南」의 편장 순서는: 「關雎」, 「葛覃」, 「卷耳」, 「樛木」, 「螽斯」, 「桃夭」, 「芣苢」, 「漢廣」, 「汝墳」, 「麟之趾」와 같고, 총

16) “『諺解』 첫 권에는 俚語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다.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11편이다.

「召南」은 「鵲巢」, 「采芣」, 「草虫」, 「采芣」, 「甘棠」, 「行露」, 「羔羊」, 「標有梅」, 「野有死麕」, 「何彼襮矣」, 「騶虞」 등 총 14편이다. 『詩物名考』와 『諺解』에서는 「殷其雷」, 「小星」, 「江有汜」 등 세 편을 제외한 11편을 정리하였다. 『詩物名考』와 『諺解』 “物名”에서는 동물과 식물만을 物名으로 구분하였고, 편장의 순서에 따라¹⁷⁾ 총 151편, 295종에 달하는 物名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詩物名考』의 저작 체재는 『詩經諺解』의 物名 부분과 같이 편장의 순서에 따라 物名을 해석했으나, 物名을 분류하지는 않았다. 또한 『詩物名考』와 『詩經諺解』에 수록된 物名の 수량이 거의 일치한다. 이 체재는 사실상 馮復京의 『詩六家名物疏』와 매우 흡사하고, 丁學游의 『詩名多識』과는 확연히 다르다.

物名 해석 부분을 살펴보면, 두 작품은 「關雎」 편에 나온 物名을 “雎鳩”, “荇”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雎鳩”에 해당하는 조선의 식물을 한글로 “증경이”라고 칭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詩物名考』는 『詩經諺解』의 한글 명칭 표기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모두 교정하였고, 『詩經諺解』에 두 가지 이상의 한글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작자의 판단으로 정확한 명칭만을 선별하여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 출처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丁學游의 『詩名多識』은 “識草”, “識穀”, “識木”, “識菜”, “識鳥”, “識獸”, “識蟲”, “識魚” 등 총 8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3종의 物名을 정리하였다. 丁學游의 物名 정리 순서는 『諺解』, 『詩物名考』와 흡사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세하게 분류하였다. 丁學游 『詩名多識·序文』의 기록에 따르면, 『詩名多識』은 丁學游가 『毛詩』를 읽으며 한 필기의 내용이

17) 이수용 등, 『『詩經』 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자의 판단으로 더 정확한 한글 명칭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했고, 착오가 있는 부분은 교정하였다. 또한 일부 物名을 注解 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詩名多識』은 『詩物名考』의 정리 순서와 큰 차이는 없으나,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모든 명물을 注解 했으며, 출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詩名多識』은 이전 저작들에서 드러나는 큰 결점들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 『詩名多識』과 『六家詩名物疏』의 비교를 통해, 두 저술이 物名을 분류하는 방법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丁學游 『詩名多識』의 체재를 살펴보면, 여덟 가지 “목(目)”이 있고, 각 목에 하위분류된 편장들이 있다. 각 목과 편장들 간에는 순서가 있으며, 다시 편장 내에서 物名이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物名을 해석한다. 예를 들어, 『詩名多識』의 권 1조에 “識草”목이 가장 먼저 실려있고, 識草 목의 하위 개념인 편장의 시작은 「關雎」편이다. 「關雎」편에서 “草”와 관련된 物名이 실린 부분을 찾아 해석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석하게 되는 것이 “荇菜”이다. 그러나 「關雎」편에 실린 “草類” 物名은 “荇菜” 한 가지로, 해당 편에 실린 내용은 이 항목뿐이다. 또 다른 예로, 「采蘋」편에는 “蘋”, “萍”, “藻” 등 세 가지의 “草”가 등장하는데, 이 또한 순서에 따라 차례로 해석을 하였다. 3책 “識鳥”목에서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약간 달라지는데, 『詩經』의 편장 순서에 따라 각 편에 실린 鳥를 해석한다. 『詩經』의 구성을 보면 제1편 「關雎」부터 제12편 「鵲巢」까지 총 12편이다. 그러나 『詩名多識』의 각 목에서 『詩經』의 모든 편을 다루진 않는데, 이는 제3편 「卷耳」부터 제11편 「麟之趾」까지는 “鳥類”가 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鳥”류 부분에서 제1편 「關雎」, 제2편 「葛覃」 다음 순서로 바로 제12편 「鵲巢」의 조류 物名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關雎」편에는

“雉” 한 종류, 「葛覃」 편에 “黃鳥” 한 종류, 「鵲巢」 편에 “鵲”, “鳩” 두 종류가 등장하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순서를 정한다. 기타 “釋木”, “釋魚”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으로 『詩名多識』의 편찬 체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六家詩名物疏』의 체재에 대해 고찰해보면, 이전 학자들의 저서와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馮復京은 그의 저서 가장 첫 부분에 「六家詩名物疏叙例」 총 10조와 “引用書目” 1권, 「六家詩名物疏提要」 상중하 3권을 첨부했다. 그 후 본문이 수록되었다.

馮復京은 그의 저작 본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목 하위 개념 物名들을 해석했는가? 그는 먼저 十五國風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詩經』 305편의 순서에 따라 物名을 풀이했다. 예를 들어, 『六家詩名物疏』 제1권은 “國風 周南”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馮復京은 먼저 “周”, “南”과 관련된 지리 환경 개념을 설명한 후, 『詩經』의 첫 편 「關雎」의 시구에 나타난 物名을 순서에 따라 하나씩 해석했다. “關關雎鳩, 在河之洲。窈窕淑女, 君子好逑.” 네 구에 등장한 物名은 “雎鳩”, “河”, “洲”, “女”로, 등장 순서대로 나열했다. 小雅·甫田之什二 부분의 첫 편 「桑扈」의 첫 네 구절은 “交交桑扈, 有鶯其羽。君子樂胥, 受天之祜.”이다. 원칙대로라면 馮復京은 먼저 “桑扈”을 해석해야 옳지만, 앞서 「小旻」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부분이므로 중복 설명하지 않고, 제3장 첫 구 “之屏之翰”의 “屏”, “翰”부터 시작하였다. 이처럼 馮復京의 저술 체재는 비교적 복잡하다. 그러므로 『六家詩名物疏』에서 物名을 정리하여 단독으로 「提要」 한 권을 만들고 본문 앞에 첨부했다. 馮復京은 「提要」에서 전체를 “釋天”, “釋神”, “釋時序”, “釋地”, “釋國邑”, “釋山”, “釋水”, “釋體”, “釋親屬”, “釋姓”, “釋爵位”, “釋飲食”, “釋服飾”, “釋室”, “釋器”, “釋布帛”, “釋寶玉”, “釋禮”, “釋樂”, “釋兵”, “釋舟車”, “釋色”, “釋藝業”, “釋夷”, “釋獸”, “釋鳥”, “釋鱗介”, “釋蟲”, “釋木”, “釋

識』은 기본적으로 『毛詩』 원문(혹은 언해본)의 내용에 입각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제가의 설을 참고했다. 또한 이는 동물과 식물 두 종류의 物名에 대해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완성된 작품이므로, 馮復京의 저작이 丁學游의 저작에 비해 그 범위가 방대하고, 목류가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2. 馮復京과 丁學游 저술 체계 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차이점은, 馮復京 『詩六家名物疏』는 전권에 수록된 物名の 세부 “目”, 예를 들어 “釋草”, “釋鱗介”, “釋木” 등을 한 권의 「提要」로 요약하였고, 丁學游 『詩名多識』에서는 物名の “목”, 예를 들어 “識穀”, “識鳥”, “識菜” 등을 본문 가장 앞부분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3. 馮復京 『六家詩名物疏』의 「提要」는, 각 류에 속한 物名을 『詩經』의 편장 순서에 따라 정리 및 배열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종 物名の 설명 하단에 출처, 즉 『詩經』의 편명을 표기한 것이다. 표1 丁學游 『詩名多識』과 표2 馮復京 『六家詩名物疏』의 物名 정리 순서를 비교해보면, 두 서적의 배열 순서는 거의 일치한다.

4. 丁學游는 비록 馮復京의 「提要」를 참고하여 저작의 체재를 구축했으나, 일부 目類의 하위 物名 분류에서 馮復京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같은 物名을 두 저작에서 각각 다른 목류로 분류한 것이다. 두 저작에서 드러나는 분류의 차이는 서로 다른 학술적 관점에서 생겨난다. 「國風·邠風·東山」 편의 “町疃鹿場, 熠燿宵行” 구에 나오는 “熠燿”, “宵行”을 예로 들면, 馮復京은 “熠燿”를 하나의 物名으로 보았고, 丁學游는 “熠燿”를 物名이 아닌 “螢火蟲”로 해석했다. 이는 丁學游가 주자의 설을 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棘”라는 物名이, 馮復京 『六家詩名物疏』에서는 “釋木”과 “釋草”목에서 각각 두 차례, 총 네 차례 등장하였고, 내용은 모두 상통했다. 반면에 丁學游의 『詩名多識』에서는 “棘”을 木本, 즉 草本 식물이 아니라고 여겨 “識木”에 포함시켰다.

그 외, 「釋鳥」, 「釋穀」에 나타난 物名의 비교를 통해 物名 분류 현황을 알 수 있다. 馮復京의 저작 「釋鳥」 부분에는 총 41종의 物名이 수록되어 있는데, 등지를 제외하면 모두 40종이며, 丁學游는 「釋鳥」를 총 44종으로 정리했다. 馮復京의 분류와 비교하여, 玄鳥, 梟, 鸞, 倉庚 등 네 가지가 더 많다.

「識穀」의 物名은 馮復京은 28종, 丁學游는 20종으로 정리하였다. 丁學游는 “苗”, “穗”, “稼”, “穡”, “禾”, “种”, “穎” 등을 곡물이 아니라고 여겼고, 百穀은 곡물의 통칭이기 때문에 이를 수록하지 않았다. 丁學游는 馮復京과 다르게 “重, 穆”와 “來, 牟”를 나누어 더욱 과학적으로 분류 및 기록하였다. 이 외 丁學游의 『詩名多識』과 馮復京의 『六家詩名物疏』에 나타난 物名에 대한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이상으로 馮復京 『六家詩名物疏·提要』와 丁學游 『詩名多識』의 物名 정리 체재 간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비교를 통해, 『詩名多識』의 분류 체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본래 필자는 역주본 『詩名多識』에서 역자가 마지막에 수록한 丁學游의 참고 문헌에서 馮復京의 『詩六家名物疏』가 포함된 것을 보고, 丁學游가 馮復京의 서적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문헌 원본과 인용 문헌을 분석하고 재고찰한 결과 丁學游가 馮復京의 저작을 참고했을 가능성보다는, 『諺解』본 『毛詩』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4. 『詩名多識』과 其他 『詩經』 物名學 작품의 내용 비교

본 장에서는 『詩名多識』과 『六家詩名物疏』, 『詩物名考』등 작품이 物名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상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및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詩名多識』의 학술적 가치를 밝혀보기로 한다.

『識草』 목(目)의 “茱萸”를 예로 든다. 『詩名多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19)

주자가 말하길, “이것은 車前草다. 그 잎은 크고, 봉오리가 아주 길며 길가에서 주로 자란다.” 육기가 말하길, “이것의 다른 이름은 當道草이다.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서 많이 자란다. 이 때문에 車前, 當道라고 불린다. 오늘날 의학계에서 車前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幽州 사람들은 이를 牛舌草라고 불렀다.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풀이며, 그 열매는 여인들의 난산(難産)에 도움이 된다.” 『本草』에서 말하길: 茱萸는 馬馮, 牛遺, 車輪菜, 地衣, 蝦蟆衣라고도 불린다. 초봄에 싹이 나오고, 잎이 땅에 펼쳐진 모습은 마치 손가락과 같다. 오랫동안 자란 것은 한 척이 훌쩍 넘고, 잎 가운데서는 암술이 나오는데 쥐꼬리를 닮았다. 꽃이 아주 촘촘하게 나며, 꽃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푸른색에 약간 붉은색을 띠며, 열매는 葶藶와 같고, 검붉은색이다.“ 『山海經』, 王會圖, 許慎, 衛宏에서 모두 말하길: 茱萸는 나무 이름이며, 열매는 자두와 비슷한데, 먹고 나면 아이 낳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 나무는 西戎(서역)에서 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모씨가 말하길: “茱萸는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慶源輔氏가 말

19) 丁學游, 『詩名多識』, 韓國經學資料集成81, 成均館大學出版部, 1989. 朱子曰: “車前也. 大葉長穗, 好生道旁.” 陸氏曰: “一名當道, 喜在牛跡中生, 故曰車前, 當道也. 今藥中車前子是也. 幽州人謂之牛舌草. 可嚮作茹大滑, 其子治婦人難産.” 『本草』曰: “茱萸, 一名馬馮, 一名牛遺, 一名車輪菜, 一名地衣, 一名蝦蟆衣. 春初生苗, 葉布地如匙面, 累年者長及尺餘, 中抽數莖作長穗, 如鼠尾. 花甚細密, 青色微赤, 結實如葶藶, 赤黑色.” 『山海經』, 『王會圖』, 許慎, 衛宏並云: “茱萸, 木名. 子似李, 食之宜子, 出於西戎.” 此恐不然. 又毛氏曰: “宜懷妊焉” 慶源輔氏曰: “陸璣以爲治難産, 而先生獨取之.”

하길, “陸璣는 이를 난산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선생(朱子)은 陸璣의 의견을 취하였다.”

『六家詩名物疏』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20)

『爾雅』에서 말하길, “莽菝는 馬漚이다. 馬漚는 車前이다.” 『爾雅注疏』에서 말하길, “(莽菝는) 약초이며, 또 다른 3가지 이름이 있다.” 곽박이 말하길, “오늘날 車前草는 잎이 크고, 봉오리가 길고, 길가에서 자란다. 강동 지역에서는 이를 蝦蟆衣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本草』에서 말하길, “車前子는 음기가 강하고, 정기를 강화시켜 주며, 아이를 품게 해준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當道, 生遺, 勝漚 등이 있다. 眞定 지역의 平澤과 丘陵 언덕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陶隱居가 말하길, “열매는 냉리(冷利)이며, 『仙經』에서도 ‘이 열매를 먹어 노화를 방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韓詩』에서는 莽菝가 나무이며, 자두나무와 같고, 이 열매를 먹으면 자손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 『圖經』에서 말하길, “봄에 싹이 피며, 잎이 펼쳐진 모습이 손가락과 흡사하다. 오랜 세월 동안 자라면 그 길이가 한 척이 넘으며, 쥐꼬리를 닮은 꽃이 피고, 아주 얇은데, 푸른색에 약간 붉은색을 띤다. 열매가 葶藶와 같으며, 검붉은 색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5월에 이 식물의 잎을 따고, 7월 8월에는 열매를 탄다.”고 하였다. 陸疏에서 말하길, “馬漚는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 車前·當道라고도 부른다. 幽州 사람들은 이를 牛舌草라고 부르며, 삶아서 茹로 만들 수 있으며 아주 미끈거리며, 열매는 난산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王肅은 『周書』의 「王會解」를 인용하며 말하길, “莽菝는 자두와 같고, 서역에서 난다”고 했다. 王基의 駢에서 말하길, “「王會」 책에서 기록된 여러 잡물들과 기이한 동물들은 四夷遠國(사방의 오랑캐들)의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나는 것들을 제사에 올렸으며, 周南의 여인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莽菝는 馬漚라고 불리는 풀이고, 西戎의 나무가 아니다.” 『神仙服食經』에서는, “車前은 사실 번개의 정(精)

20) 馮復京, 『詩經要籍集成·六家詩名物疏』, 제19책, 學苑出版社, 2002, 247면.

이다. 이를 복용하면, 우화등선(羽化登仙)할 수 있다. 8월에 地衣를 채집할 수 있는데, 地衣는 車前의 열매를 말한다.” 『韓詩』에서 말하길, “芣苢는 나무의 이름이고, 열매는 자두를 닮았고, 길 한가운데 나는 것은 車前, 길가에 나는 것은 芣苢라고 한다. 또한 芣苢는 澤寫이다. 악취가 나는 채소이다…….

내 생각에 車前子는 오늘날 方劑에서 자주 쓰는 약품이며 악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澤寫는 다른 物名인데 『韓詩』에서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詩物名考』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芣苢, 길경이. 『列女傳』에서는 芣苢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풀이라고 설명하는데,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芣苢」 편은 송나라 사람의 아내이자 蔡나라 사람의 여식이 지은 것이니,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풀이라고 해석하면)그 의미가 매우 괴이하다. 劉孝標는 “冉耕이 芣苢를 노래한다. 여기에서 冉耕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列女傳』에서 나타내는 芣苢 형상이다.”라고 하였고, 關尹子는 “芣苢는 적절히 사용하면, 몸에 이롭다”고 하였다. 또한 알려진 바와 같이, 芣苢는 무미한 약재이다. 『逸周書·王會』에서는 “康國의 사람은 조정에 芣苢를 진상하였는데, 芣苢의 과실은 李子와 같아, 섭취하면 회임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한다. 즉 『山山海經』, 許慎, 衛宏 등은 芣苢가 오늘날의 芣苢와 같다고 여겼다. 그러나 『逸周書·王會』편의 “桴”은 “芣”자가 아니다. 만약 이것이 중국에서 성장하는 식물이라면, 부녀자들이 앞다투어 채취할 것인데, 서역의 강국인들은 어찌 이러한 것을 진상하는가? 이 두 식물은 서로 다른 것이다. 『王基駁』 견해가 옳다.

위의 문헌들로 보아 “芣苢”를 해석할 때, 柳僖는 『列女傳』, 柳孝標, 『逸周書·王會解』을 인용했다. 丁學游는 주자, 육기, 왕희의 문헌을 순서대로 인용했고, 馮復京은 『爾雅』, 『疏』, 『本草』, 陶隱居, 『韓詩』, 『圖經』, 陸『疏』, 「王會解」, 『神仙服食經』, 『韓詩』의 순서로 제가문헌(諸家

文獻)들을 인용했다.

柳僖는 먼저 “芴”과 대응되는 한국 본토 식물 명칭을 사용하여 “길경이”라고 설명하였다. 본래 『詩經諺解』에는 “길경이”와 “뽕장이” 두 종류의 한글 명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柳僖는 전자의 해석을 취했다. 그 후 柳僖는 『列女傳』, 劉孝標, 『逸周書·王會解』을 인용하여 변증하는 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王基의 설을 따랐다. 劉僖의 다른 物名 해석을 보면, 丁學游, 馮復京이 인용한 『爾雅』, 陸『疏』, 『本草』 등 저작은 인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物名을 매우 간략하게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柳僖가 “雉”를 “꿩”이라고 설명하고, “燕燕”에는 “胡燕”과 “越燕” 두 종류가 있다고 주해하였다. 또한 해석에 사용한 인용문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

『六家詩名物疏』은 『爾雅』를 앞에 두었고, 뒤에 陸『疏』를 둔 뒤, 王會의 내용과 연결 지었다. 이에 비해 丁學游는 본디 주자학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詩名多識』을 저작할 때 대체적으로 주자의 해석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그 후에 陸『疏』와 王會를 인용한 점은 馮復京과 유사하지만, 陸『疏』와 王會 사이에 『本草』를 삽입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馮復京 『六家詩名物疏』는 주로 物名을 고증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데, 그 해석이 매우 상세하고 방대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육기 『毛詩草木鳥獸蟲魚疏』의 특징을 본받은 것이다. 丁學游는 각 物名에 대해 해석함에 있어 주자의 관점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즉 『詩名多識』은 주로 주자 『詩集傳』의 해석을 본받아 저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로 하여금 저서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도록 物名을 해석한 것이다.

「邶風·谷風」 편에 등장하는 “薺”를 해석한 것을 예로 들어 『詩名多識』과 『六家詩名物疏』 두 편의 인용 형식을 살펴보면, 『詩名多識』은 『詩

集傳』, 『本草』, 『爾雅注』 이렇게 세 저서만을 인용하였지만, 『六家詩名物疏』은 『爾雅』, 『本草』, 『陶隱居注』, 『禮』, 『春秋繁露』, 『淮南子』, 『師曠占』, 『雅翼』, 『通志』 등 아홉 저서를 인용했다.

위의 문헌들로 미루어 보아 “茳菴”을 해석할 때, 丁學游는 주자, 육기, 『本草』의 순서로 인용문을 배치했다. 그 후 『爾雅疏』에 수록된 「王會」 등의 문장을 실었다. 馮復京은 『爾雅』, 『疏』, 『本草』, (陶隱居文出自『本草』), 『韓詩』, 『圖經』, 陸『疏』, 「王會解」(『爾雅疏』), 『神仙服食經』, 『韓詩』의 순서로 제가문헌(諸家文獻)들을 인용했다. 이처럼 馮復京이 인용한 문헌의 수가 월등히 많고, 그 배열 순서가 복잡하다. 丁學游는 “茳菴”뿐 아니라 다른 物名들을 해석할 때에도 朱子, 『爾雅注疏』, 『本草』, 陸機『疏』의 해석을 주로 인용하였다.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인용한 문장 중, 주자의 문장이 280조에 달하고, 『爾雅注疏』와 『本草』의 문장 역시 160여 조에 달한다. 비록 丁學游가 인용한 문헌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모두 『詩經』의 物名을 명확히 해석하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큰 중요 문헌들이다. 그러므로 丁學游는 문헌을 효율적으로 인용했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본문에서는 먼저 중한 고대 物名學의 발전 맥락에 대하여 정리했고, 체제와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詩名多識』과 柳僖의 『詩物名考』, 馮復京의 『六家詩名物疏』를 비교 및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柳僖의 『詩物名考』는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탄생한 『詩經』 物名學 전문 저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다. 그러나 체재와 내용 두 측면에서, 物名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참고 문헌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수록된 物名의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후에 丁學游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여『詩名多識』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의 엄정한 고증을 토대로, 조선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편찬 체재를 지닌『詩經』物名學 저작이 탄생한 것이다.

2. 『六家詩名物疏』는 명나라『詩經』物名學의 집대성으로, 『詩經』物名學 저작의 적절한 체계 구축에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본문에서 편목과 장구의 순서에 따라 物名을 해석하나, 본문에 앞서 수록된「提要」에서는 32목류에 의거하여 物名을 분류하였다. 기존의 서적에서 특정 物名을 찾으려면, 먼저 物名이 어떤 편장에 등장하는지 알아보고, 그 편장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며 物名을 찾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중분류법을 이용한「提要」의 수록으로 이러한 과정이 크게 단축되었고,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丁學游의 저작 역시『六家詩名物疏』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효율성을 지닌다. 『詩名多識』에『六家詩名物疏』를 참고한 흔적은 없지만, 그는 馮復京과 같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物名을 정리하였다. 『詩經』物名學의 집대성으로 불리는『六家詩名物疏』의「提要」와 상당히 흡사하다. 그는 더 나아가 미세한 문제까지도 교정하는 세심함을 보인다. 당시 참고할 전문 저작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처럼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物名을 정리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3. 丁學游가『詩名多識』을 저술할 때, 주로 참고한 문헌은 朱子の『詩集傳』, 『爾雅注疏』, 『本草』, 陸璣『疏』등, 매우 권위있는 역대 저작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학술적 시각으로 볼 때『詩名多識』의 物名 분류 체재는『詩經諺解』이래의“動物”, “植物”양분 체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차이점이라면, 기존의 것을 보다 세분화했을 뿐이다. 陸璣의

『疏』, 馮復京의 『六家詩名物疏』와 비교하면, 物名의 종류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보완했다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物名 전문 저작이 탄생했을 것이다.

丁學游가 『詩名多識』을 저술할 때, 그의 나이는 고작 스무살이었다. 또한 『詩名多識』의 「序」를 통하여 해당 서적은 『毛詩』를 학습하며 物名에 대해 필기한 것이다. 책이 쓰여진 기간은 상당히 짧았는데, “春日”부터 “仲夏”까지로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천부적인 자질과 근면성을 가진 학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는 학술 정신으로, 명백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丁學游, 『詩名多識』, 韓國經學資料集成81, 成均館大學出版部, 1989.
馮復京, 『詩經要籍集成·六家詩名物疏』, 第19·20冊, 學苑出版社, 2002.
十三經著述編委會, 『論語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陳振孫, 『直齋書錄題解』, 上海古籍出版社, 1987.
脫脫, 『宋史·王安石傳』, 中華書局, 1985.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海南出版社, 1999.
金秀旻, 『韓國朝鮮時期詩經學研究』, 萬卷樓圖書股份有限公司, 2012.
이수웅 등, 『『詩經』연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4.
김영호, 『논어의 종합적 고찰』, 심산문화사, 2003.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2)』, 태학사, 2012.
허경진·김형태, 『詩名多識교주』, 한길사, 2007.

2. 논문

- 김형태, “『詩名多識』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1)”, 『韓國詩歌研究』.

- 韓立群·周小艷, “『六家詩名物疏』: 詩經名物疏 집대성 작”, 『河北學刊』, 2013.
- 郝桂敏, “陸璣『毛詩草木鳥獸蟲魚疏』 관련 문제 연구”, 『鹽城師範學院學報』, 2011.
- 洪允杓,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 오보라, “西陂柳禧『物名考』의 체계 및 의의 재탐색”, 『한국어와문학』, 2019.

Evaluation of the Academic Value of 『Shimingduoshi詩名多識』: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Liujiashimingwushu六家詩名物疏』
and 『Shijingyanjie詩經諺解』

GAO ZHENGZHENG *

Jeong Hak-yu, the second son of the great Confucian scholar Jeong Yak-yong of the Joseon Dynasty, studied 『MaoShi毛詩』 and completed the famous poetry book, 『Shimingduoshi詩名多識』. 『詩名多識』 is the first special study of poetry and history with expertise in the Joseon Dynasty. Just as FengFujing(馮復京)'s 『六家詩名物疏』 is called the culmination of the study of famous Chinese poetry and poetry, 『詩名多識』 can be said to be the culmination of the study of famous Korean poetry. In the main text, the “speciality” part of 『詩名多識』, 『六家詩名物疏』 of FengFujing, 『鳥獸蟲魚草木名』, 『詩經諺解』 are taken as subjects, and the content and format By dividing the two aspects into comparison and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Simyung Dasik and its academic value were investigated.

Key Words

comparative study, DingXueyou, 『Shimingduoshi詩名多識』, 『Shijingyanjie詩經諺解』, 『Shijingyanjie詩經諺解』, onmology

논문접수일: 2022. 11. 14, 심사완료일: 2022. 12. 26, 게재확정일: 2022. 12. 30

* Ph.D. Student, Department of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BK21 Four Chinese and Japanese Education Research Group, Korea University / E-mail: myboss2016@163.com

동서 교류에 있어서 중국 경전의 번역 및 그 영향*

— 초기를 중심으로

신원철**

-
1. 들어가며
 2. 중국 경전이 번역된 상황 - 초기를 중심으로
 3. 경전을 번역한 대표적 인물
 4. 중국 경전이 번역되어 전해진 이후 유럽에서의 영향
 5. 나가며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경전이 서쪽으로 전해진 상황을 대표적인 인물을 위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한 단초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최초 후안 코보의 《명심보감》 번역에서 제임스 레그의 사서오경 번역까지의 번역 상황 중에서 사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인물 중 제임스 레그를 제외한 3명으로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 프랑수와 노엘, 앙투안 고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이 번역된 후 유럽에서의 영향을 황태연(2011)의 기술을 통해 살펴보고 그 원인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유럽인에 의한 중국 경전의 번역과 그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술과 내용, 그리고 그 분기 등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검토하고 개척해야 할

* 본 논문은 2020년 11월 21일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수정을 거친 것이다.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사업단 HK조교수 / E-mail: chimsky@paran.com

부분이 많음을 나타낸다.

주제어: 동서 교류, 중국 경전, 번역,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 프랑수와 노엘, 앙투안 고벨, 제임스 레그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중국의 경전이 서쪽으로 전해진 상황을 대표적인 인물을 위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한 단초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 교류는 인류 탄생 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금을 통틀어 계속되는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그 중 유가(儒家) 경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 자산에 대해 서양이라고 하는 다른 세계에 어떻게 소개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권에서 십삼경(十三經) 혹은 사서오경(四書五經)으로 대표되는 유가 경전은 한대(漢代) 이후로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용되는 등 강력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현상을 서양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경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20세기 이전 중국의 경전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앙리 코르디에(Henri Cordier, 1905)를 통해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의 서양 전파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경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들의 상황을 통해 중국 경전이 서쪽에 전해진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초기'라 언급하는 시점은 미켈레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의 《대학(大學)》의 라틴어 번역이 이루어진 1593년, 즉 16세기 말을 시작으로 제임스 레그(James Legge, 理雅各)의 사서오경이 완료되는 1885년 사이 중 이후 3장에서 언급한 3명이 각각의 번역을 낸 시기, 즉 18세기 이전으로 보고자 한다.¹⁾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중국 경전이 번역된 상황을 초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번역을 수행한 인물 중 제임스 레그를 제외한 대표적인 인물 3인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이 번역된 후 유럽에서의 영향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5장은 이 논문의 결론이다.

2. 중국 경전이 번역된 상황 - 초기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임스 레그(James Legge, 理雅各, 1815-1897)의 사서오경(四書五經) 번역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다.

유가 사상의 최초의 번역은 후안 코보(Juan Cobo, 高母羨, 1546-1592)가 1592년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1593년에 출간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명심보감》이 다양한 성현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십삼경이나 사서오경 등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책은 필리핀에서 출판된 것으로 유럽에서의 소개는 1595년 미겔 드 베나비데스(Miguel de Benavides)에 의해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Felipe II de Habsburgo)에 소개되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하게 될 미켈레 루지에리의 《대학》과 비교하면 번

1) 19세기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학에 대한 수많은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서오경의 완성에 있어 제임스 레그의 작업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이전을 초기라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필자는 판단한다.

역 자체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서구권에 소개되는 것 자체는 루지에리의 것보다 늦다.²⁾

본격적인 유가 경전의 번역은 미켈레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 1543-1607)에 의해 사서(四書) 중 하나인 《대학(大學)》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미켈레 루지에리는 예수회 선교사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와 함께 《포르투갈어-중국어 사전(Dicionário Português-Chinês(葡漢辭典))》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최초의 유럽어-중국어 어휘 대조 사전으로, 포르투갈어를 표제어로 한 후 중국어 발음, 한자의 순으로 기록하였다.³⁾ 그가 번역한 《대학》은 안토니오 포세비노(Antonio Possevino, 1533-1611)에 의해 1593년 《역사, 과학, 종교 연구 총서 선집(Bibliotheca selecta de ratione studiorum in Historia, In Disciplinis, in salute omnium procuranda, 약칭 Bibliotheca selecta)》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이들을 시작으로 폴란드인 예수회 선교사인 미하우 보임(Michał Boym, 卜彌格, 1612-1659)은 1667년 중국어-라틴어 사전을, 1670년에 중국어-프랑스어 사전을 출판했다.⁴⁾ 이후 1687년 《맹자(孟子)》를 제외한 사서의 세 책을 번역한 《중국의 철학자 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가 파리에서 총 412쪽에 삽화를 더한 2절판으로 출판되었다.⁵⁾ 1711년에는 프랑수아 노엘(François

2) 이상은 張西平(2016:163-165) 참조.

3) 이상은 張西平(2009:39) 참조. 그 면모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icci-Ruggieri-Portuguese-Chinese-dictionary-page-1.png> 접속일: 2022.10.31. 13:57 확인.

4) 최정섭 등(2018:41) 참조.

5) 최정섭 등(2018:43), 안재원(2020:15) 참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그 내용을 다룰 것이다.

Noël, 衛方濟, 1651-1729)에 의해 《맹자》를 포함하고 주희(朱熹)의 서문을 더한 《사서(四書)》를 완역하였다.⁶⁾ 이후에도 산발적인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1739년 앙투안 고빌(Antoine Gaubil, 宋君榮, 1689-1759)의 《서경(書經): 중국의 성서(Le Chou-king, un des livres sacrés des Chinois)》는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조슈아 마시맨(Joshua Marshman, 馬士曼, 1768-1831)이 인도 세람포어(Serampore)에서 1809년 《The Works of Confucius》에 《LUN-GNEE(논어)》라는 제목으로 《논어》의 상십편(上十篇)을 번역하였고, 1814년 《Elements of Chinese Grammar(中國言法)》에 《大學(TA-HYOH)》를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실은 것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제임스 레그(James Legge, 理雅各, 1815-1897)에 의해 집대성된다. 그는 1861년 《Confucian Analect(論語)》, 《The Great Learning(大學)》, 《The Doctrine of the Mean(中庸)》이 포함된 1권을 시작으로, 같은 해 《The Work of Mencius(孟子)》, 1865년 《Shoo king(書經)》, 1871년 《She king(詩經)》, 1872년 《Ch'un ts'ew with Tso's Appendix(春秋左氏傳)》, 1882년 《The Yi king(易經)》, 1885년 《The Li ki(禮記)》까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전부 번역하였다.⁷⁾ 이로써 유럽에서 중요한 경전은 거의 소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레그의 번역은 그 생경한 문체가 특징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자로 적힌 경전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여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였다.⁸⁾

6)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7) Henri Cordier(1905:1367-1385) 참조.

8) 허버트 자일스에 따르면 레그의 번역은 중국학 연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의 시도다. “지금 레그 박사의 위대한 작업을 경시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 관행은 그 번역들이 ‘건조하다 wooden’라고 말한 토머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경의 시절부터 유래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레그의 작업은 중국어 연구에서 행해진 것 중 최대

다음 장에서는 이 중 제임스 레그 이전의 몇 명의 인물을 통해 초기 번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임스 레그는 연구가 매우 끈진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필자는 판단해서이다.

3. 경전을 번역한 대표적 인물

여기서 뽑은 세 명은 제임스 레그만큼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도 아니고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 어떠한 경전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기준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임스 레그에게도 왕도(王韜, 1828-1897)라는 협력자가 있어 그에게 도움을 받아 번역할 수 있었다.⁹⁾ 여기서의 기술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어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각 경전의 영향 등을 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Intorcetta Prospero, 殷鐸澤, 1625-1696)이다.¹⁰⁾ 앞에서 그가 《사서》 중 《맹자》를 제외한 세 책을 《중국의 철학자 공자》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고 하였다. 이 때 최종적으로 완결한 사람은 필립 쿠플레(Philippe Couplet, 柏應理, 1623-1693)이다. 포르투갈인으로 예수회 신부인 이그나치오 다 코스타(Inácio Da Costa, 1603-1666)는 이 책에서 《대학》과 《논어》의 앞 부분 5장에 대해 초벌 번역을 마치고 인토르체타를 포함한

의 기여이며, 토머스 웨이드 경 자신의 하찮은 기여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져버린 다음에도 기억되고 연구될 것이다.”(Herbert Allen Giles, *Adversaria Sinica*, p. 346, 최정섭 등(2018:262)에서 재인용.)

9) 노재식(2012:150) 참조.

10) 인토르체타의 생평(生平)과 관련하여서는 안재원 역(2020:13-14) 참조.

다른 신부들의 도움을 통해 완성하였다. 이때 함께 참여한 학생으로는 안드레아 페라오(Andrea Ferrão, 1625-1661)가 있어 이그나치오 다 코스타의 지도를 통해 《논어》의 초반부를 번역했다.¹¹⁾ 따라서 이러한 면에 근거하면 인토르체타의 온전한 노력을 거친 부분은 《중용》이라 할 수 있다.¹²⁾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예수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중국어 경전에 매우 관심이 많고 이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번역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라틴어로의 번역은 라틴어가 가진 위상인 당시 유럽의 공용어이자 식자층의 언어로, 유럽의 지식층에게 중국의 경전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¹³⁾ 당시 예수회는 중국에 진출한 지식인 중 가장 밀접하게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룹 중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중국어 습득의 목적으로 경전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¹⁴⁾ 중국 경전 강독을 통해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선교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앞에서 《사서》를 번역함에 《맹자》를 제외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맹자》는 《사서》의 다른 부분과 달리 전국시대의 맹가(孟軻, BC 327-BC 289)와 관련된 것으로, 아마도 앞에서 제시한 《중국의 철

11) 티에리 메이나드(Thierry Meynard, SJ, 2015:9) 참조.

12) 안재원 역(2020:20) 참조.

13) 비록 인토르체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글 속의 뉘앙스로는 이보다 더 많은 좋은 것이 있다고 읽히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출판한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의 지혜를 제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공자와 맹자의 책을 유럽에 제시하는 것은 마치 몇 잔의 물을 바다에 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이를 결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안재원 역(2020:23)에서 인용.

14) Thierry Meynard, SJ(2015:9) “Da Costa went back to Fuzhou福州, in Fujian province, to teach young Jesuits the Four Books.”(이그나치오 다 코스타가 푸젠의 푸저우로 돌아와서 젊은 예수회 선교사에게 《사서》를 가르쳤다.) 이를 통해 중국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15)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안재원(2020) 중 해제 부분 참조.

학자 공자》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아서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맹자》의 내용이 아무리 공자의 도통(道統)을 직접 이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자 자신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그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맹자》를 포함한 《사서》의 완역은 프랑수아 노엘(François Noël, 衛方濟, 1651-1729)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가 1711년 프라하에서 출판한 라틴어 《중화제국육경(Sinensis Imperii Libri Classici Sex)》에는 《대학(Adulorum Schola)》, 《중용(Immutabile Medium)》, 《논어(Liber Sententiarum)》, 《맹자(Memcius)》, 《효경(孝經, Filialis Observantia)》, 《소학(小學, Parvulorum Schola)》을 포함한다.¹⁶⁾ 실상 육경(六經)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사용될 때 대개 《시(詩)》, 《서(書)》, 《예(禮)》, 《악(樂)》, 《역(易)》, 《춘추(春秋)》를 가리킨다. 노엘이 육경(Libri Classici Sex)이라는 제목을 붙일 때 이 사실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서에 두 권을 더하여 여섯 개의 경전이라는 의미로 붙였을 것이다. 노엘의 번역은 앞서 나왔던 《중국 철학자 공자》의 번역을 참조하지 않고 원문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고 본다.¹⁷⁾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밥티스트 뒤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에 의해 그의 《중국과 타타르 제국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와 과학(Description Géographique,

16) 黃正謙(2013:133) 참조.

17) 장 피에르 아벨 레뮈사(Jean Pierre Abel-Rémusat)의 주장으로 다음과 같다. "... mais le P. Noël n'a pas reproduit leur version: il a travaillé immédiatement sur les originaux." 黃正謙(2013:136)에서 재인용.

18) 중국에 대해 흥미가 많았던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가 노엘의 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인토르체타의 번역에 기반했다는 점에 근거한다. 黃正謙(2013:134-5) 참조.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에서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사서》의 라틴어로의 완역이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⁹⁾ 그렇다면 《삼경(三經)》을 포함한 경(經)은 언제 번역이 시작된 것일까? Shunqing Cao(2013:39)에 의하면 니콜라 트리코(Nicolas Trigault, 金尼閣, 1577-1628)에 의해 《오경(五經)》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고 하였다.²⁰⁾ 그러나 그 실체를 볼 수 없다.²¹⁾ 또한 항저우에서 출판을 하면서 유럽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경의 번역자로서는 앙투안 고빌(Antoine Gubil, 宋君榮, 1689-1759)을 들 수 있다. 그의 1739년에 출간한 《서경(書經): 중국의 성서(Le Chou-king, un des livres sacrés des Chinois)》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서경》의 번역이다. 그 외에도 《역경(易經)》, 《예기(禮記)》 등을 번역하고 주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²²⁾

19) 다양한 책과 문서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가 1594년에 《사서》를 번역했다고 기술하였다. 필자가 참조한 곳은 Chen Hong(2015:89)이다. 그렇지만 마테오 리치가 지었다고 하는 책의 제목과 그 면모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과 같이 기술하였다.

20) "At the sixth year of Emperor Tianqi of the late Ming Dynasty of China (1626), The Five Classics, translated by Nicolas Trigault, a French missionary, was published in Hangzhou. It was the earliest translated version of the Chinese classical books."

21)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오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볼 수 없다. 일본어 위키피디아 니콜라 트리코(ニコラ・トリゴ) 항목에서는 『Pentablibion Sinense』(1626年)は五經のラテン語譯というが、現存しない[4].”라고 하여 현재 볼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3%83%8B%E3%82%B3%E3%83%A9%E3%83%BB%E3%83%88%E3%83%AA%E3%82%B4%E3%83%BC>, 접속일: 2022.10.31. 13:57 확인.

22) <https://www.itsfun.com.tw/%E5%AE%8B%E5%90%9B%E6%A6/AE/wiki-0990494-9716274>, 접속일: 2022.10.31. 13:57 확인.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중국 경전의 번역은 예수회 선교사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마테오 리치나 니콜라 트리코, 미켈레 루지에리 등도 언급되었지만, 그들의 번역에 도움을 준 여러 사람이 있었음 또한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인토르체타나, 노엘, 고빌 등이 완전히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현재 번역된 실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번역물이 끼친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겠다.

4. 중국 경전이 번역되어 전해진 이후 유럽에서의 영향

동양의 학문이나 사상이 서양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기술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한 서술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황태연(2011)을 들 수 있다. 그는 “공자의 충격”이라는 표현으로 서구 계몽주의가 동아시아문명에 영향을 받았음을 들고 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합리주의, 자유경제론, 자유시장론 등에 모두 공자를 위시로 하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음을 서술하였다. 이 방대한 서술 속에서 시선을 끄는 곳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나폴리 예수회(Societate Jesu) 소속의 알렉산드로 발리냐로(Alessandro Valignano, 范禮安, 1539-1606) 신부와 그의 선교사들이 최초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철학의 원전들을 공부하고, 중국인들을 ‘무식한 이교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의도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한 것은 새롭고 독특한 정신사적 실험의 시발점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동서문명의 수준 차이로 인해 중국을 기독교화하기보다 오히려 유럽을 중국화하는

데 기여했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저술을 통해 중국 사상이 17·18세기 서구의 정신들에 미친 영향을 오늘날 빠짐없이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중략) 그리하여 30년 전쟁 이래 유럽에서 고대 중국의 성인 공자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합리론자에게 일약 도덕·시민 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참된 합리적 '자연종교'로 받아들여졌고, 경험론자에게는 든든한 철학적 지원군으로 존중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자 철학을 정통 가톨릭 사상과 유사한 것처럼 제시하려고 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도에 의해 촉진되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헌신한 예수교 선교사에 의해 경전이 번역되어 유럽에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리의 강화, 중국 문명에 대한 소개 등을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 현지에 정착한 예수교 선교사가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였을 것이다. 교류를 진행하면서 중국인에게 도덕적으로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해주는, 즉 강한 신념을 알려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것은 중국어 학습 과정 중에서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대로 《사서》의 경우는 철학적이론서와 문자 학습서를 겸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교 선교사들이 후자의 용도로 접근했던 경전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전자로서 느끼게 되는 말 그대로 함양(涵養)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종교를 전파하겠다고 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심신을 무장한 선교사에게는 사서오경과 같은 도덕적인 문장들이 울림을 더 주지 않았을까 한다. 종교적 신심(信心)은 전혀 없는 일반인들도 《논어》나 《중용》 같은 글 속에서 지혜로움과 더 나아가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물며 신성(神性)을 추구하는 지식인인 선교사에게는 그 울림이 심상치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초기부터 《명심보감》 등으로 접근하여, 《사서》를 번역하고 경전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이 소개될 때에는 그 속의 신성함까지 함께 보이면서 유럽에서 다양한 사상적 변화의 단초로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교류에 의해 유럽에서는 중국학(Sinology)라고 하는 학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고, 더 나아가 현재 서구의 인류 문화적 헤게모니(Hegemonie)의 바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동서 교류에 있어 중국 경전의 번역과 그의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최초 후안 코보의 《명심보감》 번역에서 제임스 레그의 사서오경 번역까지의 번역 상황 중에서 사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인물 중 제임스 레그를 제외한 3명으로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 프랑수와 노엘, 앙두안 고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이 번역된 후 유럽에서의 영향을 황태연(2011)의 기술을 통해 살펴보고 그 원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제임스 레그 이전 사서와 서경의 번역에 대해 위에 제시한 인물을 중심으로 번역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예수회 선교사에 의한 번역은 선교사의 신심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사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연구 결과도 많다. 이 논문은 앞으로 이전까지 이와는 다른 연구를 해왔던 학자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자료를 조사하고 고유 명사를 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구하였음에도 명확하지 않은 것, 사실 관계가 다른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예를 들어 앞 부분에 제시한 니콜라 트리고의 《오경》 번역에 대해서 중국 책에서는 모두 사실로 설명하고 있으나, 서양의 문헌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앙투안 고빌의 책 경우에도 《서경》의 번역은 확인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술이 된 경우도 있고 몇몇 경우는 아예 경전의 번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도 많았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모두에게 공인되었거나 앞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연구의 틈이 보이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직접 번역된 원문을 찾아보고 각 구절에 대한 이해나 그들의 번역 양상 등에 대해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노재식(2012), 〈제임스 레계와 東學西漸〉, 《중국사연구》 80집.
- 데이비드 B. 허니 지음, 최정섭·안재원 옮김(2018), 《위대한 중국학자》, 글항아리.
- 인토르체타 역주, 안재원 편역주(2020),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 논형.
- 황태연 지음(2011), 《공자와 세계1, 2, 3》(3권), 창계.
- 張西平(2009), 〈來華耶穌會羅明堅的漢語學習〉, 《或問》 第17號.
- 張西平(2016), 〈儒家思想早期在歐洲的傳播〉, 《中國文化研究》, 2016年秋之卷.
- Chen Hong(2015), 〈On Matteo Ricci's Interpretations of Chinese Culture〉, Coolabah, No.16.
- Henri Cordier(1905), 《BIBLIOTHECA SINICA-DICTIONNAIRE

BIBLIOGRAPHIQUE DES OUVRAGES RELATIFS A L'EMIRE
CHINOIS», Librairie Orientale & Américaine.

Shunqing Cao(2013), 《The Variation Theory of Comparative Literature》,
Springer.

Thierry Meynard, SJ(2015), 《The Jesuit Reading of Confucius》, Brill.

위키미디어(<https://commons.wikimedia.org/>) 접속일: 2022. 10. 31. 13:57.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접속일: 2022.10.31.13:57.

華人百科(<https://www.itsfun.com.tw/>) 접속일: 2022.10.31.13:57.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and their Influence on East-West Exchanges

Shin Wonchu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the situation in which the Chinese classics were translated to the west mainly by representative figures, and to explore the beginning of the reason through this. Chapter 2 focuses on the four books among the translation situations from Juan Cobo's 《Mingxinbaojian 明心寶鑑》 which are the first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by European to James Legg's translation of The Four books and The Five Classics. Chapter 3 focuses on three representative figures, Introcetta Prospero, François Noël, and Antoine Gaubil, except for James Legg. Chapter 4 examines the influence in Europe after such Chinese classics were translated through the description of Hwang Taeyeon(2011) and the reason of this. By way of these descriptions, the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by Europeans and their influence were overviewed. The various descriptions, contents, and brache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are many areas that need to be reviewed and pioneered in the future, even though a lot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Key Words

East-West exchanges, The Chinese classics, translation, Introcetta Prospero, François Noël, Antoine Gaubil, James Legg

논문접수일: 2022. 10. 31, 심사완료일: 2022. 12. 26, 게재확정일: 2022. 12. 30

* HK assistant professor, HK+ project team, Institute for Theology, Anyang University. / E-mail: chimsky@paran.com

清代 滿漢合璧 四書에 관한 고찰

— 국내 소장 4종을 중심으로

최다정 *

-
1. 서론
 2. 清代 滿漢合璧 四書
 - 1) 滿漢合璧 四書의 제작 배경
 - 2) 국내 소장 滿漢合璧 四書
 3. 결론
-

■ 국문요약

본고는 청대 만한합벽(滿漢合璧) 사서(四書) 중 국내소장본을 대상으로 그 제작 배경·상세한 서지사항·유입 경위 등을 고찰했다. 『청실록(淸實錄)』을 살핀 결과, 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경서(經書)를 만주어로 번역한 정황을 알 수 있었다. 이때 간행된 만문 사서 중 국내로 유입된 4종은 저마다의 특징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1755년(乾隆20) 간행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 초간본(初刊本)이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김정희(金正喜)의 호(號)인 '시암(詩菴)'이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고, 김정희와 교유가 깊었던 옹방강(翁方綱)의 환송(漢宋) 겸채(兼采)론이 드러나는 문구가 쓰여 있어 추사의 흔적을 확인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어제번역사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인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에 따른 청구기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1923년

*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 재학 / E-mail: choi_dajeong@naver.com

이후 입수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한합벽 『사서집주(四書集註)』는 1838년(道光18) 북경 유리창의 병울당(炳蔚堂)에서 간행해 한 부(部)당 문은(紋銀) 4냥에 판매했던 정황이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어제번역사서』는 건륭 연간 간행됐던 것을 1888년(光緒14) 중간(重刊)한 판본이다. 이는 만주족의 신흥 상업구역으로 형성된 용복사(隆福寺) 거리 서적 시장의 '취진당(聚珍堂)'에서 간행된 것인데, 19세기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서 번역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는 판본이다.

주제어: 滿漢合璧, 御製繙譯四書, 滿洲語, 金正喜, 炳蔚堂, 聚珍堂

1. 서론

본고는 청대 만한합벽(滿漢合璧) 사서(四書) 중 국내소장본 4종을 대상으로 그 상세한 서지사항과 유입 경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을 설립한 만주족은, 만주족·몽골족·한족으로 구성된 다원적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한족이 일궈둔 중원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포용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청 황실은 건국 초부터 한어의 학습을 목표로 한적(漢籍)을 만주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했다. 문학·역사·군사 등 여러 장르의 주요 작품 번역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경서(經書)는 번역의 대상이 된 대표 한적에 해당한다.

국내 학계의 만한합벽 사서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수준이다. 우선, 김동소(2011)는 만주 문자와 만주어 문헌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만문 사서의 존재를 언급했다.¹⁾ 또한 김주원(2012)은 서울대학교 소장 만주

1) 김동소, 「만주 문자와 만주어 문헌에 대하여」, 『만주어 마태오 복음 연구(1)』, 지식과 교양, 2011.

어·몽골어 문헌의 목록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만한합벽 사서집주』의 존재와 간단한 서지 사항을 서술했다.²⁾ 이 밖에 만문 『시경(詩經)』의 번역 양상을 밝힌 김주원·정계문·고동호(2009)의 연구와, 만문 『서경(書經)』 「홍범(洪範)」 편을 역주한 송강호(2017)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³⁾

중국 학계에서는 季永海(2009)가 청대 한적을 만주어로 번역한 배경을 밝히고, 번역의 대상이 된 사서삼경·역사·군사·문학 서적의 대표 작품 목록을 개괄적으로 기술했다.⁴⁾ 또한 王碩(2021)⁵⁾은 청대 유교 한적 만역의 배경과 특징, 영향 등을 아울러 살폈다. 개별 경서의 만역 본에 대한 연구로는, 王敵非(2011, 2012a)가 『논어』의 ‘何陋之有’를 만주어로 번역한 양상을 문법적으로 분석한 것과, 『좌전』의 만문 번역에 나타난 특징을 밝힌 논문이 있다.⁶⁾ 王敵非(2012b)·門議炜(2019)·金華(2021)·石文蘊(2022)는 『시경』의 만역 양상을 고찰했다.⁷⁾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아직까지 국내 소장 만역 사서의 상세한 서지 사항 및 그 가치를 밝힌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서

2) 김주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2, 한국알타이학회, 2012.

3) 김주원 외 2명, 「滿文 詩經의 翻譯 樣相 研究」, 『알타이학보』 19, 한국알타이학회, 2009.

송강호, 「만문 書經 「洪範」 역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 81, 문헌과해석사, 2017.

4) 季永海, 「清代滿譯漢籍研究」, 『民族翻譯』 第3期, 2009. (2013년 한국고서연구회 발간 『고서연구』 31호에 해당 논문의 한국어 번역본 등재).

5) 王碩, 「清中叶以降儒學典籍滿譯研究」, 東北師範大學, 2021.

6) 王敵非, 「滿譯「何陋之有」相關詞語用法研究」, 『滿語研究』, 2011.

——, 「滿譯「左傳」詞語研究-以「鄭伯克段于鄆」爲例」, 『滿語研究』, 2012a.

7) 王敵非, 「民族文化在文學翻譯中的體現-以滿譯「詩經·關雎」爲例」, 『黑龍江民族叢刊』, 2012b.

門議炜, 「武英殿刻本滿譯『詩經』的語言特点研究」, 中央民族大學, 2019.

金華, 「以『詩經』爲例的滿譯漢籍文獻編目研究」, 『圖書館學刊』, 2021.

石文蘊, 「淺論『詩經』滿譯本中的疊詞翻譯策略」, 『民族翻譯』, 2022.

소장하고 있는 만한합벽 사서는 4종이 있다. 먼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1755년(乾隆20) 간행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 초간본(初刊本)이다. 특히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친필로 작성한 표제와 문구가 쓰여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어제번역사서』는 건륭 연간 간행됐던 것을 1888년(光緒14) 중간(重刊)한 판본이다. 이 3종의 『어제번역사서』는 사서의 경문(經文)만 만문(滿文)으로 번역해 한문과 함께 병기한 방식으로 구성된 책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한 1838년(道光18) 간본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주희(朱熹)의 주석을 함께 만문으로 번역한 만한합벽본이다.

이상 4종의 만한합벽 사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되, 먼저 청대 만한합벽 사서의 제작 배경을 살펴본 뒤 국내 소장본의 상세한 서지사항과 해당 판본이 지닌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시도해봄으로써 경서 연구의 새로운 한 방식과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가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2. 清代 滿漢合璧 四書

1) 清代 滿漢合璧 四書의 제작 배경

홍타이지(hongtaiji)가 자신은 '만주족의 한(han)이자 몽골족의 대칸(大汗)이며 한족의 성왕(聖王)'이라고 말하며 청국(淸國)을 선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청나라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한 다민족 국가였다.⁸⁾

8) 이훈(2018)은 청이 중국·몽골·티베트·위구르 지역 등 다양한 민족을 포함한 제국이었으며, 여러 강역과 민족을 단일한 체제로 지배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청은 국어(國語)인 만주어뿐 아니라 한어·몽골어·티베트어 등의 언어를 통용하는 다중언어 정책을 펼쳤다.⁹⁾ 특히 관료 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만주문(滿洲文)과 더불어 한문(漢文)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었다. 국가에서 작성하는 문서도 대체로 만주문과 한문을 병기한 ‘만한합벽(滿漢合璧)’ 혹은 ‘만몽한합벽(滿蒙漢合璧)’¹⁰⁾의 형태로 쓰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 국가 차원에서 경서(經書)를 만주어로 번역하는 작업 역시 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소정잡록(嘯亭雜錄)』 卷一 「번서방(翻書房)」조〉

숭덕(崇德) 초, 문황제(文皇帝: 홍타이지)는 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고 정치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문성공(文成公) 달해(達海)에게 『국어(國語)』·『사서(四書)』·『삼국지(三國志)』 각 1부를 번역하도록 명하여서 조정의 원로들에게 하사하여 정사에 임하는 규범으로 삼았다. 도음을 정한 후에는 태화문 서곽(西廊) 아래에 ‘번서방(翻書房)’을 설치해, 팔기(八旗)에서 만주문을 거둬 암송할 자를 간택하여 등용하였는데 그 인원엔 한정을 두지 않았다.¹¹⁾

만주족 종실(宗室)인 애신각라초안(愛新覺羅昭棟, 1776~1830)이 쓴 필기 잡록 『소정잡록(嘯亭雜錄)』¹²⁾ 「번서방(翻書房)」 조에는, 청 건

즉, 한인에게는 명의 제도를, 기인에게는 팔기의 제도를, 몽골·티베트·위구르에도 다른 법과 제도가 적용되었다고 설명했다.(이훈,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2018, 282쪽 참조.)

9) 이은상, 『(건륭제의 문화 프로젝트) 이미지 제국』, 산지니, 2021, 15쪽 참조.

10) 만한합벽(滿漢合璧)·만몽한합벽(滿蒙漢合璧): 왼쪽에서부터 만주어-몽골어-한문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청의 황제들은 19세기 말까지 세 언어에 능숙했고 귀족층 역시 그럴 것을 요구받았다.(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2013, 174쪽 참조.)

11) 『嘯亭雜錄』 卷1 「翻書房」, “崇德初, 文皇帝患國人不識漢字, 罔知治體, 乃命達文成公海翻譯『國語』、『四書』及『三國志』各一部, 頒賜耆舊, 以為臨政規範. 及定鼎後, 設翻書房於太和門西廊下, 揀擇旗員申請習清文者充之, 無定員.”

12) 『소정잡록(嘯亭雜錄)』: 청대 애신각라초안(愛新覺羅昭棟, 1776~1830)이 편찬한

국 초 태종(太宗)이 문성공(文成公) 달해(達海)¹³⁾에게 『사서(四書)』를 만주어로 번역할 것을 명한 내용이 보인다. 한문을 잘 모르는 관료들에게 경서를 통해 한문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였다. 청 황제들은 만주족이 한문에 무지하여 한인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으며, 만주족에게 만주어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한문을 익히길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¹⁴⁾

또한 『소정잡록』의 기록을 통해 북경으로 도읍을 정한 후에는 북경 태화문(太和門) 서쪽 성곽 아래에 만문 번역만을 전담하는 기관인 번서방(翻書房)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32년 연경을 방문했던 조선 연행사 김경선(金景善, 1788~1853) 역시 오문(午門) 안의 각종 조방(朝房)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번서방을 언급한 바 있다.¹⁵⁾ 이처럼 경서를 비롯한 한적(漢籍)을 만문(滿文)으로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한 아문(衙門)인 번서방은 청 말기인 1911년까지 존속했다.¹⁶⁾

아울러 『청실록(淸實錄)』을 살펴보면, 강희(康熙) 연간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서를 만문으로 번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아가 팔기(八旗)의 한문 교육을 강조했던 점과 더불어 번역고시(翻譯考試)¹⁷⁾

필기잡록이다. 청 도광(道光) 초 이전의 정치·군사·경제·문화·전장제도(典章制度)·문무관료(文武官的)·사회 관습 등에 관한 귀중한 사료를 다량 보존한 서적이다. 작가는 자신의 체험과 견문을 기술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대부분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가치가 있다.

13) 달해(達海): 만주 정황기인(正黃旗人). 입관(入關) 전부터 활동한 저명한 번역가로 만한문(滿漢文)에 능통해 한어(漢語) 경전을 번역했다.(季永海(2009, 앞의 논문) 참조.)

14) 이훈(2018, 앞의 책) 274쪽 참조.

15) 金景善, 『燕轅直指』 卷3 「留館錄」, 1832年 12月 19日, “午門, 卽宮城正門, 或稱五鳳門, 兩簷三門. …… 門內左設嘉量, 右設日圭. 東西兩廡, 各二十四間, 稽察上諭內閣誥勅起居注繙書等房, 皆在於此. 其內卽大內太和門.”

16) 『淸史稿』 「本紀25 宣統皇帝本紀」 1911年 6月 3日, “甲子. 內閣上內閣屬官官制·法制院官制, 詔頒布之. 置內閣承宣廳, 制誥·敘官·統計·印鑄四局. 設閣丞·廳長·局長各官, 並置內閣法制院院使. 罷憲政編查館·吏部·中書科·稽察欽奉上諭事件處·批本處, 俱歸其事於內閣, 以繙書房改隸翰林院.”

를 치른 정황도 확인 가능하다.

[표1] 『청실록(淸實錄)』에 나타난 만문사서(滿文四書) 번역 관련 기록

순	출전	핵심 내용
1	『聖祖仁皇帝實錄』 1672年(康熙11)	翰林院 소속 福達禮가 『大學衍義』을 滿文으로 번역 완료한 뒤, 간행과 반포를 進모함.
2	『聖祖仁皇帝實錄』 1708年(康熙47)	1708년 당시 四書五經의 經文은 滿文으로 번역 완료된 사실을 밝히면서, 다른 경서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
3	『世宗憲皇帝實錄』 1724年(雍正2)	禮部에 소속된 번역 담당 관리를 滿文 번역 실력만으로 등용한다는 기록.
4	『世宗憲皇帝實錄』 1731年(雍正9)	蒙古八旗 출신을 理藩院 소속 관리로 등용함에 있어, 滿文『日講四書』의 漢文을 蒙文으로 번역하는 시험을 치렀음.
5	『高宗純皇帝實錄』 1738年(乾隆3)	繙譯鄉會試에서 『淸文四書』를 번역하는 문제 및 滿洲文 1편 창작 문제를 출제함.
6	『高宗純皇帝實錄』 1742年(乾隆7)	1738(乾隆3)에 시행됐던 繙譯鄉試를 이어받아, 『四書淸文』에서 1문제를 출제하고 또한 性理論을 滿洲語로 쓰는 문제의 출제를 제안하는 鄂爾泰의 奏文.
7	『高宗純皇帝實錄』 1751年(乾隆16)	군기대신 등이 (滿文)『繙譯五經四書』를 進모함.
8	『宣宗成皇帝實錄』 1843年(道光23)	1843年(道光23)에 滿文·蒙文을 漢文으로 번역하는 (駐防)八旗의 考試에 대한 조목. 이때의 繙譯鄉試 역시 만주어 四書를 번역하고 論하는 방식으로 치름.
9	『文宗顯皇帝實錄』 1856年(咸豐6)	滿漢合璧『欽定繙譯四書五經通鑑』이 완성됐음. 특히, 강희11년 福達禮가 四書를 滿文으로 번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滿洲新語 및 對音切字가 이때 重刊本에는 반영됐다는 사실을 강조함.

한문을 만문으로 번역한 경서(經書)가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672년(강희11)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복달예(福達禮)가 『대학

17) 번역고시(繙譯考試): 王碩(2021, 앞의 논문)은 청대에 치러진 각종 번역 시험은 기인(旗人)이 벼슬길에 오르는 중요한 경로였으며, 이때 번역 시험 문제는 경서의 만역본을 대상으로 출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연의(大學衍義)』를 만문으로 번역해 황제에게 올렸다는 내용이다.¹⁸⁾ 1708년(강희47) 강희제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뜻을 궁구한다면서 이때 독서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바로 사서오경(四書五經)이라고 말한다. 또한 강희제는 당시 사서오경은 만문으로 번역 완료됐으나 강목(綱目)과 강의(講義)류의 서적들은 번역이 안 된 상황이라며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¹⁹⁾

1731년(옹정9)에는 몽골팔기(蒙古八旗) 출신을 이번원(理藩院) 소속 관리로 등용함에 있어, 『청자일강사서(淸字日講四書)』의 한 대목을 몽골어로 번역하는 방식의 시험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²⁰⁾ 이어 1738년(건륭3) 번역향시(繙譯鄉試)에서 『청문사서(淸文四書)』의 번역 문제 및 만주어로 한 편의 글을 창작하는 문제가 출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1742년(건륭7)에 악이태(鄂爾泰, 1680~1745)²²⁾가 올린 장주문(章奏文)을 보면, 이때 역시 『청문사서』에서 1문제를 출제하고 ‘성리

18) 『聖祖仁皇帝實錄』 1672年 7月 15日, “翰林院掌院學士傅達禮等, 進呈翻譯『大學衍義』, 并請卽付劄刷, 廣行頒布. 得旨, 書留覽, 餘依議.”

19) 『聖祖仁皇帝實錄』 1708年 6月 22日, “惟以讀書窮理盡吾之志, 凡五經四書, 已經繙譯之外, 如綱目講義等有關於治道者, 靡不譯盡. 近老成耆舊, 漸就凋謝因而微文奧旨, 久而弗彰承譌襲外習, 而不察字句偶有失落, 語音或有不正, 國書所關甚鉅, 政事文章皆由此出.”

20) 『世宗憲皇帝實錄』 1731年(雍正9) 4月 30日, “近見蒙古八旗分人, 能蒙古語言繙譯者甚少. 沿習日久則蒙古語言文字, 必漸至廢棄. 應照考試淸文繙譯例, 考試蒙古文繙譯, 取中生員舉人進士, 以備理藩院之用. … 其考試生員, 派蒙古提督學政一員, 於『淸字日講四書』內, 視漢文三百字爲准, 出題一道, 考試舉人進士, 派蒙古主考一員, 蒙古同考官二員, 仍以『淸字日講四書』一道爲首題, 再加淸字奏疏一道爲次題, 俱令其以蒙古文繙譯. 至生員舉人進士額數, 著考試官選擇應取試卷. 臨期奏請.”

21) 『高宗純皇帝實錄』 1738年(乾隆3) 4月 27日, “禮部議准, 河南道御史赫慶條奏, 繙譯鄉會試屆期, 所有同考官四員, 請諭各部院堂官, 及各館總裁, 令於司官纂修官內, 擇明通之員, 送部開列. 并請欽命繙譯一題外, 再於『淸文四書』內, 欽命一題, 令士子作淸文一篇.”

22) 악이태(鄂爾泰): 『世宗憲皇帝實錄』의 修纂官 명단에는 ‘監修總裁’로 ‘光祿大夫經筵講官太保議政大臣保和殿大學士兼兵部尚書總理兵部事三等伯加十五級臣鄂爾泰’가 기술되어 있다. 악이태가 옹정제 재위 당시 실록의 감수총재로 임명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론(性理論)을 주제로 만주문을 창작하는 방식의 번역고서를 제안하고 있다.²³⁾ 도광 연간인 1843년(도광23)에 이르러서도 팔기(八旗)의 고시가 만·몽문(滿·蒙文) 사서를 한문(漢文)으로 번역하고 논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기록이 나타난다.²⁴⁾

완성된 형태의 번역사서를 황제에게 올린 기록은, 1751년(건륭16)과 1856년(咸豐6)에 보인다. 이를 통해 1751년에는 만문으로 번역한 『번역오경사서(繙譯五經四書)』가 완성됐고²⁵⁾, 1856년에는 만한합벽(滿漢合璧) 『흠정번역사서·오경·통감(欽定繙譯四書五經通鑑)』이 완성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856년의 만한합벽 사서·오경·통감의 경우 강희 연간에 사서를 만문으로 번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만주신어(滿洲新語) 및 대음절자(對音切字)가 반영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²⁶⁾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만주어와 한문 실력을 겸비한 번역

23) 『高宗純皇帝實錄』 1742年(乾隆7) 7月 7日, “大學士鄂爾泰等議奏, 查繙譯鄉會試, 於雍正元年議定, 雍正二年鄉試, 三年會試, 後經禮部以會試人少具奏, 奉旨六十名會試在案。嗣因乾隆三年, 因繙譯鄉試, 已閱六科, 有百餘人, 議准參議馬璘條奏, 於乾隆四年開科會試, 取中二十二人, 因人數甚少, 未經殿試, 俱賜進士出身, 今年八月, … 臣等公同酌議, 除繙譯鄉試, 仍照舊例辦理外, 其繙譯會試殿試, 皆掄才大典, 自當按期舉行, 上科因人數無多, 未經殿試, 今不拘定人數, 亦不必另定期場, 請嗣後繙譯會試, 即於會試天下貢士時, 於闈中另編字號, 一同考試, 分爲兩場, 頭場人衆, 不必入試, 於二場點進, 試『四書清文』一篇, 考經性理論清文一篇, 三場, 試繙譯一篇, … 一同殿試, 即令滿讀卷官閱看進呈。”

24) 『宣宗成皇帝實錄』 1843年(道光23) 8月 20日, “軍機大臣會同禮部議覆駐防考試繙譯章程二十條。… 一、各省繙譯鄉試, 准照文闈各就本省舉行, 一、各省蒙古繙譯, 亦應照滿漢繙譯鄉試之例辦理。一、繙譯鄉試題目, 由禮部奏請, 欽命試以四書文清字論題一道, 滿洲蒙古繙譯題一道, 即由派出該省之文闈考官帶往, 親交監臨刊刻頒發。… 一、繙譯錄科, 於鄉試年五月內, 由該將軍等出題考試, 滿洲用漢字繙譯題一道, 蒙古用清字繙譯題一道。”

25) 『高宗純皇帝實錄』 1751年(乾隆16) 7月 2日, “又諭曰, 尙書孫嘉淦, 以所著『詩經補註』, 間日進覽, 於興觀群怨之旨, 頗有發明, 朕亦時折其中, 從此薈萃成編, 足備葩經一解, 孫嘉淦請開館纂修, 朕以爲無事更張, 現在軍機大臣等, 逐日有進呈『繙譯五經四書』。”

26) 『文宗顯皇帝實錄』 1856年(咸豐6) 9月 23日, “前據大學士文慶等, 進呈前任巴里坤領隊大臣三等侍衛孟保, 繙譯『大學衍義』一書, 當交鑲黃旗漢軍校刊, 並派侍郎穆蔭, 協

인재를 강희 연간부터 지속적으로 선발해왔음을 알 수 있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족의 문화를 아우르는 공부를 추구했던 당대의 지향점이 드러나는 바이다.

한편, 1755년 간행된 『어제번역사서』의 서문²⁷⁾을 보면, 건륭제는 재위 초기 대학사(大學士) 악이태(鄂爾泰)에게 명하여서, 청초부터 만문으로 번역해온 경서에 대해 그 오류를 바로잡고 거듭 정리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건륭제가 ‘아주 작은 유감도 없어진 후에야 그만둘 것이다[無毫髮遺憾而後已]’, ‘학자들은 쉽게 만족하지 말라[學者慎毋以淺嘗自足]’ 등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당시 청조가 사서의 만문 번역에 얼마나 공력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2) 국내 소장 滿漢合璧 四書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만한합벽 사서는 4종이 있다. 먼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1755년(乾隆20) 간행

同校閱，茲據文慶等奏稱、督同繙書房司員等、詳加校訂、並發交該旗印務章京、會同孟保、刊刻成書、朕覆加披閱、均係欽遵乾隆年間、欽定繙譯四書、五經、通鑑、各按新語、詳加釐定、因思宋臣眞德秀此書、因大學條目、纂集經史、考證得失、於聖學治道、均有發明、康熙十一年間、我聖祖仁皇帝、特命翰林院掌院學士福達禮等、繙譯頒行、顧其時滿洲新語未備、引用經史、皆係舊語、對音切字、有未經繙譯成文者、又止清文單行、未及增註漢字、今既引用新語、又成滿漢合璧、開卷瞭然、洵足爲士子編摩之助、著將刊板、交武英殿刷印頒行、俾在京八旗、及各省駐防、同資講肄、用副朕稽古同文、精益求精至意。”

27) 「御製繙譯四書序」, “國朝肇立文書, 六經史籍次第繙譯, 四子之書首先刊布傳習。朕於御極之初, 命大學士鄂爾泰, 重加釐定, 凡其文義之異同, 意旨之淺深, 語氣之輕重, 稍有未協者, 皆令更正之。然抑揚虛實之間, 其別甚微。苟不能[按節揣稱, 求合於毫芒, 而盡祛其疑似], 於人心終有未慊然者。幾暇玩索, 覆檢舊編, 則文義意旨語氣之未能昭合者, 仍不免焉。乃親指授繙譯諸臣, 參考尋繹, 單詞集字, 昭晰周到, 無毫髮遺憾而後已。夫義蘊淵深, 名理無盡, 文字爲人所共知共見, 而一一歸於至當, 尚必待功力專勤, 至再至三而始得之, 可以知學問之道, 功愈加則業亦愈進。況夫體備於躬行, 發揮於事業, 苟非侷焉日有孳孳, 精益求精, 而欲底於有成難矣。學者慎毋以淺嘗自足, 而憚於有爲也哉!”

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 초간본(初刊本)이다. 다음으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어제번역사서』는 건륭 연간 간행됐던 것을 1888년(光緒14) 중간(重刊)한 판본이다. 이 3종의 『어제번역사서』는 사서(四書)의 경문(經文)만 만문(滿文)으로 번역해 한문과 함께 병기한 만한합벽 방식으로 구성된 책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한 1838년(道光18) 간본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주희(朱熹)의 주석을 함께 만문으로 번역한 만한합벽본이다.

[표2] 국내 소장 滿漢合璧 四書

분류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명	①『御製繙譯四書』	②『御製繙譯四書』	③『四書集註』	④『御製繙譯四書』
저자	• 乾隆帝 命編 • 鄂爾泰 釐定	• 乾隆帝 命編	• 未詳	• 乾隆帝 命編
판 사항	• 木板本(初刊)	• 木板本(初刊)	• 木板本(重刊)	• 木板本 (①의 重刊)
발행 사항	• 刊寫者未詳 • 乾隆20(1755)	• 刊寫者未詳 • 刊寫年未詳	• 琉璃廠 炳蔚堂 • 道光18(1838)	• 聚珍堂 • 光緒14(1888)
형태 사항	• 6卷6冊 • 四周雙邊 半郭 18.4×13.1cm, 無界, 上黑魚尾; 26.3×16.9cm	• 6冊 • 四周雙邊 半郭 18.4×18.0cm, 無界, 上下向黑魚尾; 23.0×15.5cm	• 14冊 • 四周雙邊 半郭 21.4×14.6cm, 無界, 花口, 上下向黑魚尾; 27.3×16.7cm	• 6冊 • 四周雙邊 半郭 無界, 上黑魚尾; 24.5×15.6cm
주기 사항	• 滿漢對譯本 • 廿四品詩卷藏 • 表題: 蒙文四書 • 序: 乾隆20(1755) • 1.大學 2.中庸 3-4.論語 5-6.孟子	• 滿漢對譯本 • 朝鮮總督府圖書 館藏書印 • 表題: 御製繙譯四書 • 序: 乾隆20(1755) • 1.大學 2.中庸 3-4.論語 5-6.孟子	• 滿漢對譯本 • 表題: 大學集註, 中庸集註, 論語集註, 孟子集註 • 1.大學 2.中庸 3-7.論語 8-14.孟子	• 滿漢對譯本 • 表題: 御製繙譯四書 • 序:乾隆20(1755)28) • 1.大學 2.中庸 3-4.論語 5-6.孟子

①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御製繙譯四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어제번역사서』는 6冊을 아울러 덮어싼 겹 표지가 따로 있고, 앞면에 ‘蒙文四書 6冊’이라는 표제(表題)를 적어두었다. 그리고 각 책의 표지에도 별도로 ‘大學 全’·‘中庸 全’·‘論語 乾’·‘論語 坤’·‘孟子 乾’·‘孟子 坤’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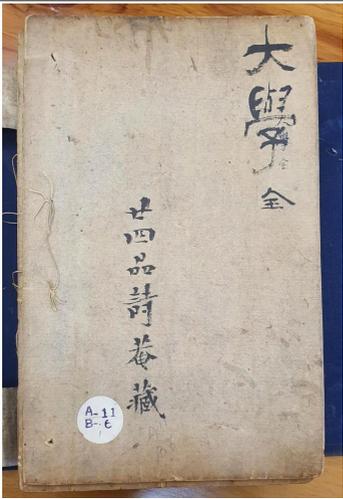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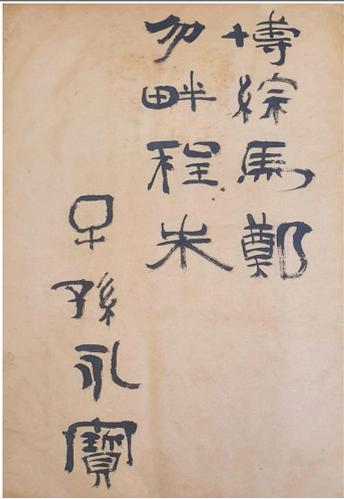
〔표3〕 『繙譯四書』 각 冊 표지의 冊名 서체

1冊	2冊	3冊	4冊	5冊	6冊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은 1冊인 ‘大學 全’의 표지에 써있는 ‘廿四品詩菴藏’이라는 기록과, 6冊인 ‘孟子 坤’ 마지막 면의 ‘博綜馬鄭, 勿畔程朱. 子孫永寶.’라는 기록이다.

2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의 서지사항에서는 乾隆24(1759)년에 서문이 작성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원본 확인 결과 乾隆20(1755)년 작성된 서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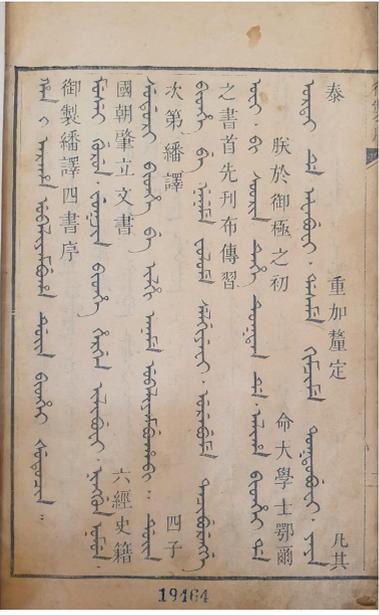
[표4] 『繙譯四書』 1冊 및 6冊

1冊 '大學 全' 표지	6冊 '孟子 坤' 마지막 면
	
<p>“廿四品詩菴藏”</p>	<p>“博綜馬鄭, 勿畔程朱, 子孫永寶.”</p>

‘시암(詩菴)’은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호(號)이다. 또한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을 널리 종합하고, 정자와 주자를 배반하지 말라 [博綜馬鄭, 勿畔程朱.]’는 문구는 김정희와 깊은 교류를 맺었던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이 추구한 한송(漢宋) 겸채(兼采)의 입장을 드러낸다.²⁹⁾ 이 문구뿐 아니라 각 책(冊)의 표지 서체도 모두 김정희의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대학교 소장 『번역사서(繙譯四書)』는 김정희가 소장하게 되면서 각 책의 표지에 책명을 쓰고 마지막 책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을 밝혀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29) 양원석(2018)은 옹방강이 견지했던 경학 연구 방법론을 ‘한송겸채(漢宋兼采)’로 파악하고 그것이 실제 그의 경학 연구에 적용된 양상을 고찰하고자 옹방강의 시경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양원석, 「翁方綱의 詩經學-漢宋兼采의 경향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2018.)

[표5] 『御製繙譯四書』 고려대학교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卷首面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권수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권수면
	
<p>「御製繙譯四書序」 ※ 표지 뒷면에 高麗大學校圖書館藏書印.</p>	<p>「御製繙譯四書序」 ※ 권수면에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印.</p>

겉표지의 ‘몽문사서(蒙文四書)’라는 표제(表題)와 달리 이 책은 권수면(卷首面)의 서문(序文)에서 알 수 있듯 한문을 만주문으로 번역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이다. 김정희가 책을 청으로부터 입수한 이후, 혹은 후손이 김정희의 장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몽문사서’라는 표제를 잘못 붙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만주어와 몽골어에 밝지 못했고, 문자 형태가 비슷한 두 문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각 책의 앞표지 혹은 뒤표지

안쪽에 ‘高麗大學校圖書館’ 장서인이 찍혀 있다. 보성전문학교에서 출발한 고려대학교는 1946년에 교명을 ‘고려대학교’로 정하였고 도서관 역시 ‘고려대학교 부속도서관’으로 개칭했다. 즉 장서인의 단서를 통해 이 판본은 1946년 이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입수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御製繙譯四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그 체제가 동일하다. 다만 판식(板式)을 비교해보았을 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광곽(匡郭)이 고려대학교 소장본과 달리 중간중간 끊겨 남아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본 표지의 안쪽 면에서는 ‘朝鮮總督府圖書館 圖書登錄番號 古19804 昭和16.6.5’라는 인기(印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권수면(卷首面)에는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前身)이다. 『어제번역사서』의 청구기호 古1-30-18 역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고서 분류 체계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여지숙·오동근(2004)³⁰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조선을 비롯한 대륙 침략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하나로 모아두려는 목적으로 만주·몽골·시베리아 관련 자료를 ‘조선문(朝鮮門)’이라는 체계로 아울러 분류했다.

『어제번역사서』에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인이 찍혀 있는 점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에 따른 청구기호가 붙어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어제번역사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운영 시기인 1923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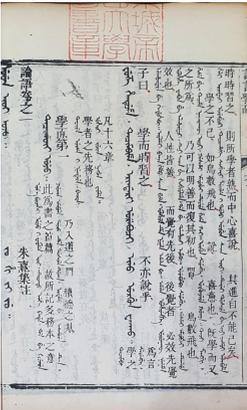
30) 여지숙·오동근,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4.

관 이후 입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滿漢合璧 『四書集註』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한합벽(滿漢合璧)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주희(朱熹)의 『사서집주』를 만주어로 번역하고 오른쪽에 한문을 병기했다. 총 14책으로, 『대학집주(大學集註)』 1권 1책, 『중용집주(中庸集註)』 1권 1책, 『논어집주(論語集註)』 10권 5책, 『맹자집주(孟子集註)』 7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의 표지에는 따로 제침(題簽)을 붙여 책명을 만주어와 한자로 표기해두었다.

[표6] 『四書集註』의 형식

제침(題簽)	편제면(篇題面)	권수면(卷首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學集註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 中庸集註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 論語集註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 孟子集註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四書集註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滿漢字合璧 • 每部紋銀肆兩整 • 道光戊戌秋月重刊校對無訛 京都琉璃廠兩蔚堂朱氏藏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주어 經文 - 한자 經文 - 만주어 주희 註 - 한자 주희 註의 순서로 병기했다.

첫 책인 『대학집주』의 표지 안쪽 편제면(篇題面)에는 ‘도광(道光) 무술년(1838) 가을, 중간(重刊)하고 교정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북경 유리창 병울당(炳蔚堂)의 주씨(朱氏) 장관.(道光戊戌秋月, 重刊校對無訛, 京都琉璃廠炳蔚堂, 朱氏藏板.)’이라는 간기(刊記)가 적혀 있다. 또한 ‘매부는 문은(紋銀) 4냥을 금액으로 정한다(每部紋銀肆兩整)’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이때 ‘문은’이란 곧 청에서 화폐로 쓰이던 은으로 병울당에서 이 책에 4냥의 금액을 매겨 판매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책의 권수면(卷首面)에는 ‘경성제국대학도서관(京城帝國大學圖書館)’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김주원(2012)³¹⁾은 현 서울대학교 소장 경성제국대학의 장서 중 만주어 문헌을 정리하면서, 만한합벽 『사서집주』는 1941년 수집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때 또한 『사서집주』를 비롯한 여러 만주어 문헌이 1941년에 유입된 것은, 1932년 만주국의 건립과 중일전쟁 과정에 일본인이 중국 현지에서 책을 수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리창의 병울당이 조선의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임백연(任百淵, 1802~1866)이 1837년(헌종3)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 수행원으로 북경에 갔을 때이다. 『경오유연일록(鏡語遊燕日錄)』 1837년 1월 22일 기사에는 임백연이 병울당에 가서 의자에 앉아 청의 학자와 필담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³²⁾ 서울대 소장본 만한합벽 『사서집주』 역시 1838년 병울당에서 중간(重刊)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병울당은 19세기 초 북경 유리창에서 운영된 서점임을 짐작 가능하다.

31) 김주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2, 한국알타이학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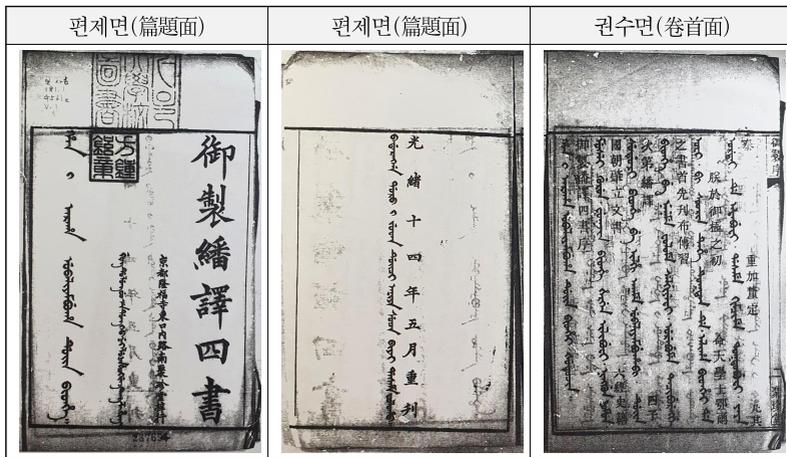
32) 任百淵, 『鏡語遊燕日錄』 1837年 1月 22日, “逢朱生善邦, 相揖於道, 要與同往里所, 廠號炳蔚堂, 相與連椅, 筆談半晌.”

④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御製繙譯四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은 1755년(건륭20) 간행되었던 『어제번역사서』를 1888년(광서14) 북경 취진당(聚珍堂)에서 중간(重刊)한 것이다.

만주족은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후 만(滿)·한(漢) 거주지역을 구분했다. 이때 정양문(正陽門) 안쪽 내성(內城)지구는 만주 귀족의 거주지역으로 설정했으며, 외성(外城)에는 한족(漢族)만 거주하도록 했다. 이에 내성지구는 신흥 상업구역으로 형성되었고, 응복사(隆福寺) 주변으로 서적 시장이 발전했다.³³⁾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의 간기(刊記)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간본 『어제번역사서』는 응복사 거리의 '취진당'이라는 서방(書房)에서 간행했다. 이때 취진당은 응복사 서적 시장에 가장 이른 시기에 생긴 서방들 중 한 곳이다.

〔표7〕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御製繙譯四書』의 篇題面 및 卷首面



33)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시간의 물레, 2012, 195쪽 참조.

선생이 방대한 고서(古書) 수집가였던 점과, 19세기 말 청조의 서적이 활발히 조선으로 유입되었던 시대적 정황을 아울러 감안할 때 취진당본 『어제번역사서』가 일사문고에 소장된 경위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측해볼 수 있겠다.

3. 결론

본고는 청대 만한합벽(滿漢合璧) 사서(四書) 중 국내소장본 4종을 대상으로 그 제작 배경·상세한 서지사항·유입 경위 및 특징적 면모를 고찰했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청조 만한합벽 사서가 제작되고 유통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보았다. 청은 만주어·한어·몽골어·티베트어 등의 언어를 통용하는 다중언어 정책을 펼쳤는데, 특히 한족을 원활히 통치하기 위해 만주족 관료에 대한 한문(漢文)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며 『청실록(淸實錄)』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경서(經書)를 만주어로 번역하는 작업 역시 청 초기부터 지속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만주어로 번역된 『번역사서』를 대상으로 삼아 번역고시(翻譯考試)를 치렀던 정황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정잡록(嘯亭雜錄)』 「번서방(翻書房)」 조를 통해서도 한적(漢籍)을 만문(滿文)으로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아문(衙門)인 번서방이 존재했던 것을 파악했다.

한문을 만문으로 번역한 경서(經書)가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672년(강희11)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복달예(福達禮)가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만문으로 번역한 것이었다. 나아가 완성된 형태의

34) 이호권, 「一簣 方鍾鉉 선생과 國語史 자료」,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참조.

번역사서를 황제에게 올린 기록은, 1751년(건륭16)과 1856年(咸豐6)에 보였다. 특히, 1856년 완성된 만한합벽 『흠정번역사서·오경·통감(欽定繙譯四書五經通鑑)』의 경우 강희 연간에 사서를 만문으로 번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만주신어(滿洲新語) 및 대음절자(對音切字)가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해보았다.

다음으로 2장 2)절에서는, 만한합벽 사서 중 국내소장본 4종의 상세한 서지사항과 조선 유입 경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1755년(乾隆20) 간행된 『어제번역사서(御製繙譯四書)』 초간본(初刊本)이다. 이때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경우 1冊인 ‘大學 全’의 표지에 써있는 ‘廿四品詩菴藏’이라는 기록과, 6冊인 ‘孟子 坤’ 마지막 면의 ‘博綜馬鄭, 勿畔程朱, 子孫永寶.’라는 기록에 주목했다. ‘시암(詩菴)’은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호(號)이었고,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을 널리 종합하고, 정자와 주자를 배반하지 말라[博綜馬鄭, 勿畔程朱.]’는 문구는 김정희와 교유가 깊었던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의 한송(漢宋) 겸채(兼采)론을 드러낸다. 또한 각 책(冊)의 표지 서체도 모두 김정희의 것으로 추측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어제번역사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그 체제가 동일하나, 표지의 안쪽 면에 ‘조선총독부도서관 도서등록번호(朝鮮總督府圖書館 圖書登錄番號)’가 찍혀있고 권수면(卷首面)에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라는 장서인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인이 찍혀 있는 점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분류 체계에 따른 청구기호가 붙어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이 『어제번역사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 운영 시기인 1923년 개관 이후 입수된 것이라 판단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한합벽 『사서집주(四書集註)』는 주희(朱

熏)의 『사서집주』를 만주어로 번역하고 오른쪽에 한문을 병기한 체제이다. 1책인 『대학집주』의 표지 안쪽 편제면(篇題面)에는 ‘도광(道光) 무술년(1838) 가을, 중간(重刊)하고 교정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북경의 유리창 병울당(炳蔚堂)의 주씨(朱氏) 장판.(道光戊戌秋月, 重刊校對無訛, 京都琉璃廠炳蔚堂, 朱氏藏板.)’이라는 간기(刊記)가 적혀 있었다. 또한 편제면의 ‘매 부는 문은(紋銀) 4냥을 금액으로 정한다[每部紋銀肆兩整]’라고 기입된 것으로 보아, 병울당에서 이 책에 4냥의 금액을 매겨 판매했던 정황을 짐작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어제번역사서』는 건륭 연간 간행됐던 것을 1888년(光緒14) 중간(重刊)한 판본이었다. 간기를 통해 이 판본은 만주족의 신흥 상업구역으로 형성된 용복사(隆福寺) 거리 서적 시장에 가장 이른 시기 생긴 서방(書房)인 ‘취진당(聚珍堂)’에서 간행했음을 파악했다. 18세기까지는 사서 번역 및 간행이 청조의 주도로 진행됐던 데 비해, 19세기에는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간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는 판본이라 여겨진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경서 연구의 새로운 한 방식과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학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청대의 ‘만문 번역본 경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결과, 청대에 국가 차원에서 경서를 만역하는 일에 주력했으며 청초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 발행한 여러 번역 경서들이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청대의 경학 관련 여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지해야 할 바이다.

〈참고문헌〉

- 『(滿漢對譯本)四書集註』,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목판본.
『御製繙譯四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목판본.
『御製繙譯四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御製繙譯四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목판본.
『嘯亭雜錄』, 文淵閣四庫全書本.
- 이은상, 『(건륭제의 문화 프로젝트) 이미지 제국』, 산지니, 2021.
이훈,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2018.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저, 양희웅 역,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2013.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시간의 물레, 2012.
- 김동소, 「만주 문자와 만주어 문헌에 대하여」, 『만주어 마태오 복음 연구(1)』, 지식과 교양, 2021.
김주원·정제문·고동호, 「滿文 詩經의 翻譯 樣相 研究」, 『알타이학보』 19, 한국알타이학회, 2009.
김주원,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만주어 몽골어 문헌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2, 한국알타이학회, 2012.
송강호, 「만문 書經「洪範」역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 81, 문헌과해석사, 2017.
양원석, 「翁方綱의 詩經學-‘漢宋兼采’의 경향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2018.
여지숙·오동근,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4.
이호권, 「一簣 方鍾鉉 선생과 國語史 자료」,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金華, 「以『詩經』爲例的滿譯漢籍文獻編目研究」, 『圖書館學刊』, 2021.
石文蘊, 「淺論『詩經』滿譯本中的疊詞翻譯策略」, 『民族翻譯』, 2022.
門議焯, 「武英殿刻本滿譯『詩經』的語言特点研究」, 中央民族大學, 2019.

- 王碩, 「清中叶以降儒學典籍滿譯研究」, 東北師範大學, 2021.
- 王敵非, 「滿譯“何陋之有”相關詞語用法研究」, 『滿語研究』, 2011.
- _____, 「滿譯『左傳』詞語研究-以『鄭伯克段于鄆』為例」, 『滿語研究』, 2012a.
- _____, 「民族文化在文學翻譯中的體現-以滿譯『詩經·關雎』為例」, 『黑龍江民族叢刊』, 2012b.
- 季永海, 「清代滿譯漢籍研究」, 『民族翻譯』, 2009.
- P. G. von Mollendorff,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92.

A Study on Qing Dynasty's Four Books Written in Manchu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Focusing on 4 Species in Domestic Collection

Choi, da jeong^{*}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production, detailed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targeting domestic collections among Qing dynasty's Four books written in Manchu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Qingsillok清實錄』,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inuous translation of the Confucian scriptures into Manchu from the early Qing period. Among the Four books written in Manchu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published at this time, the four types introduced into Korea each have their own distinctive features.

First, in the possession of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t is the first edition of 『Eojaebeonyeoksaseo御製繙繹四書』 published in 1755(乾隆20). In the case of the Korea University collection, there is a record that it was owned by 'Siam(詩菴)', the surname of Kim Jeong-hee (金正喜). It is possible to confirm traces of Kim Jeong-hee as there are written phrases that reveal the philosophy of Ong bang-gang(翁方綱), who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Kim Jeong-hee.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ojaebeonyeoksaseo御製繙繹四書』 can be judged to have been obtained after 1923 by confirming that there is a claim number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Library.

^{*} Currently studying at Korea University, Ph.D. in Classics Translations
/ E-mail: choi_dajeong@naver.com

Next, the collect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Saseojipju 四書集註』, was published in 1838 at the 'Byeonguldang(炳蔚堂)' in Yourichang(琉璃廠), Beijing. And it is understood that each volume was sold for 4 pieces of silver(紋銀).

Finally, the collection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ojaebeonyeoksaseo 御製繙譯四書』 is a mid-length version in 1888 of what was published in the year of Qianlong(乾隆). This was published in 'Chwijindang (聚珍堂)' in the book market on the street of Yongboksa(隆福寺) Temple, which was formed as a new commercial district for the Manchus. This is a valuable edition in that it shows the fact that the Manchu translation of four books was actively carried out in the 19th century in the private sector.

Key Words

Manchu and Chinese characters together, 『Eojaebeonyeoksaseo』, Manchu, Kim Jeong-hee, Byeonguldang, Chwijindang

논문접수일: 2022. 11. 13, 심사완료일: 2022. 12. 26, 게재확정일: 2022. 12. 30

서평: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당윤희 *

한국경학학회에서 매달 진행하는 강독회의 읽을거리로 벤자민 엘먼(Benjamin A. Elman) 교수의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원제: From Philosophy to Philology: Intellectual and Social Aspects of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양희웅 옮김. 예문서원 2004)라는 책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접하게 되었다. 아주 오래전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빠르게 찾아보면서 자료를 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인지, 이 책에 대한 인상이 깊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 동인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들여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진득하게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험을 해 보니,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나 관점으로 부터 얻게 된 깨달음과 그로부터 새롭게 채워지는 생각의 퍼즐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매달 이어진 강독회의 정리도 할 겸, 이 책을 읽고 난 소회를 간단히 적어보고자 한다.

한국경학학회의 회장이신 이강재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라는 책이 매달 진행하는 강독회의 읽을거리로 선정된 후, 2022년 4월 30일에 이시연 박사생과 박선영 박사생이 각각 서문과 1장 “전근대 후기의 담론 혁명”의 발제를 해준 것을 시작으로 5월에 최다정

* 건국대 중어중문학과

박사생과 이시연 박사생이 각각 2장 “도심과 인심 논쟁”과 3장 “고증학과 공유된 인식론적 관점의 형성”을 발제하면서 이 책에 대한 강독이 이어졌다. 6월에 이아영 박사생과 당윤희가 각각 4장 “강남 학자들의 전문직업화”와 5장 “학술, 도서관, 서적 출판”을 발제했으며, 7월 23일에 변은미 박사생과 노경희 선생님이 각각 6장 “강남 학술공동체의 교류 채널”과 7장 “대단원”을 발제하면서 강독을 마무리 지었으니 근 4개월에 걸쳐 읽어나간 셈이다. 한국 한문학과 한국 경학, 철학 전공자이거나 중국 경학이나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들이 함께 책을 강독했고, 어느새 익숙해진 온라인 강독회는 중국의 송대와 명대, 청대에 거쳐 성리학이 흥성했다가 다시 고증학이 태동되고 발전하게 된 사회 문화적 동인에 대해 설명한 벤자민 엘먼 교수의 견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장이 되었다.

이 책의 작자인 벤자민 엘먼(Benjamin A. Elman) 교수는 1946년 독일 뮌헨의 유대인 난민수용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1968년 미국 해밀턴대학을 졸업하고 태국 평화봉사단에서 일하면서 버마와 태국 변경에서 말라리아 등 질병 예방 프로젝트에 종사했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태국어에 능통하게 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벤자민 엘먼 교수는 1973년에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지역 연구 박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1973-74년에 대만 타이페이 인터 유니버시티 센터에서 공부하고 1977-78년에는 일본 도쿄의 인터 유니버시티 센터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일본어를 연수하던 시절, 일본의 청대 고증학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17-18세기 중국 사상사를 연구하는 일본의 학술 연구 성과를 소개받았다고 하였다. 엘먼 교수는 이때 자신의 연구주제였던 금문경학에 대한

관심이 고증학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그의 박사논문 주제가 17-18세기 고증학의 발전 내에서 금문학이 차지했던 위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술하였다. 저자는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시간 대학교 중국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UCLA 역사학과 교수를 거쳐 2002년도부터 프린스턴대학 동아시아학과 및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벤자민 엘먼 교수는 영어, 중국어 및 한문, 일어, 불어, 독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하여, 중국사상사, 사회사, 문화사, 교육사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으며 연구의 범위를 중국과학사와 일본 사상사 분야로까지 넓혀가며 폭넓은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강독회에서 읽었던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이외에 “고전주의, 정치, 종족: 청대 상주(常州) 금문학과(今文學派) 연구”(1990)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전근대 후기 중국의 신사(紳士) 사회가 학생들의 경전 교육을 위해 가족과 종족 중심으로 조직적인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특히 상주에 살던 종족 조직체는 지역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권위를 지니면서 정치적 영향력과 학문적 명성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짚어내었다. 이로부터 엘먼 교수의 연구가 정치, 사회와 문화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학술의 발전을 살펴보는 연구 방법론을 취하는 경향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엘먼 교수는 이후로 “청대의 교육과 사회”(1994)를 공동으로 저술하고 “중국 과거제도의 문화사”(2000) 등을 연구하면서 제도와 교육, 정치, 문화가 결합된 중국 전근대 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강독회를 진행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졌던 문제 중에 “From Philosophy to Philology”라는 영문 제목의 해석에 대해 논의된 바 있었다. 이 제목은 직역을 한다면 “철학으로부터 문헌학으로”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책의 서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영문 번역의 문제에서부

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엘먼 교수는 서문에서 이 독특한 제목의 진짜 의미는 중국 고전시기의 학술이 “송명 성리학에서 청대 고증학으로” 변화해갔던 역사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고 역자는 그 견해를 존중하여 그대로 따르면서 영문 제목의 본래 의미와 서구적 분류는 잠시 내버려 두었다. 일본과 중국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강독회에서도 엘먼 교수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책 제목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성리학이 철학적 사유를 중시하고 고증학이 문헌학의 방법론을 핵심으로 여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영문 제목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의 제목을 통해 성리학과 고증학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한 번 더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하는 엘먼 교수의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고증학의 태동과 발전의 기제에 대한 엘먼 교수의 분석이 기존의 중국학자의 연구에서 종종 언급되었던 바, - 성리학이 쇠퇴하고 고증학이 주류 학풍으로 자리 잡은 것은 청나라 조정의 문자옥(文字獄)과 같은 정치적 탄압과 명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송학(宋學)의 공소(空疎)한 문풍에 대한 반발 등이 원인이 되었다는 - 고증학의 변화와 발전을 청대 정치 사회의 변화에 종속시키는, 분명히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해석과 달랐던 것이다. 엘먼 교수는 고증학을 발전시킨 청대 학자들이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경제력을 갖추고 오랜 시간 연마된 학술 전통을 지닌 ‘학술공동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학술공동체’가 혈연과 지연으로 서로 결속되어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한편, 훌륭한 교육을 통해 과거에 급제한 많은 자제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다시 정치력을 공고히 하고 경제력을 확장하는 선순환을 보이는 궤도를 파악하여 학술공동체의 지역 사회적 특성, 경제 문화

적 특성, 공동체의 구조와 구성원의 특성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고증학의 발전이 청대 통치자들의 정치적 억압과 학술 정책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학자들의 일정한 경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소극적인 해석과는 결이 다르며, 오히려 당시 중국 강남의 풍요로운 경제적 뒷받침 속에서 양성된 동향(同鄉)의 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고대 언어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고대 경전의 정확한 의미와 재구성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학술 사상이 꽃피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학술의 진전과 발전이 일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기에 사회의 경제 제도라는 변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또 다른 종속적인 관계성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부분은 17-18세기 강남 장서루(藏書樓)의 발전과 출판 사업의 번영이 그대로 청대 고증학 및 학술의 발전의 일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장서루는 수집된 수많은 책으로부터 지식의 집적과 교착, 원류의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고증학의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전통 시기에 간행된 전통 시대 중국의 총서들은 근대의 정기간행물처럼 어떤 것을 기록으로 남겨 둘 때 사용하는 주요한 매체가 되었고 마치 소규모 도서관과 흡사할 정도로 그 총서의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출판되었다. 이 총서들의 존재는 현대와 같은 체계적인 도서관 시설이 결여된 시대에 현대의 도서관 목록을 대체할 만한 주제별 참고 목록 역할을 하였고, 고대의 작품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설명은 총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또한 총서의 형성은 중국의 전근대 시기 지식의 축적과 확산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국적인 특색을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에 18세기의 고증학자들이 편지를 사용하여 현재의 학술 간

행물의 역할을 대신하였다는 사실도 개인의 정감을 숭회하는 문학 양식이상으로서 존재하였던 당시 편지의 기능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학자들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의 부분(副本)을 남겨놓기도 하고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인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어 편지를 돌려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필사하기도 하는 한편, 심지어 출판하는 간행물로 삼기도 하였다. 젊은 학자들이 정보 교환을 위해 서신 왕래에 의지하였으며, 학술적인 성격의 서신은 훗날 종종 작자의 문집 또는 단독 저작의 형태로 수집되어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학자들 간에 지식과 의견이 교환되고 수정되고 학습되는 방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엘먼 교수는 외국인으로서 중국의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십분 발휘하였으니,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라는 책을 통해 성리학자들과 고증학자들의 학술적 경향과 관점뿐만 아니라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들을 또렷하게 부각시켜서 그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생활하던 시대의 전반적인 면모를 함께 그려내었다. 그의 책을 통하여 고증학자들의 정신적 지향과 더불어 고증학자들이 지향하던 학술 활동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환경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다. 무엇보다도 송학(宋學)과 한학(漢學)이라는 유학 연구 방법론을 대립 구도로 보는 기존의 관점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여, 중국의 전근대 시기에 청대 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들을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학문 발전의 추세로 나타났다고 해설한 것은 신선한 관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대 고증학은 다만 고대 경전의 문헌 연구에 천착하였던 학술적 경향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연구 방법론은 청대 학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과 과학, 경험, 실증을 중시하는 근대 학문으로의 전환을 예비하는 단계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때 “문자옥에 걸려들까 두려워 자리를 피하고, 책의 저술이란 모두 호구지책이었을 뿐(避席畏聞文字獄, 著書都爲稻粱謀)”이라는 폄하를 받기도 하였으나, 청대 고증학자들은 고대 경전의 정확한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서 학문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들의 일생을 바쳐 경전 연구에 정진하였다. 우리 강독회가 그 옛날 중국의 성리학자와 고증학자들, 그리고 조선의 사상가들이 읽었던 고대 경전들을 읽고 그들이 그려냈던 사유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지향했던 사상과 철학, 경전 해석의 의미를 바르게 해독하고 보편적인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옛 중국 고증학자들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동아시아의 경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 현재적 의미의 학술공동체가 되고, 이 책에 대한 서평이 그 학술공동체의 궤적을 보여주는 한 발자국이 될 수도 있겠다.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의 學會誌 『經學』에 게재할 논문 的 投稿에 관한 절차를 定하고 관련 업무를 規定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제3조 (著作權)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에 掲載된 論文 등의 著作權은 本 學會가 소유한다. 著作權에는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포함한다. 다만, 掲載된 論文 등의 筆者가 本人의 論文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學會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이를 承認한다.

제4조 (논문의 성격)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은 經學과 關聯이 있는 전공 학술 논문을 비롯하여 관련 글, 소식 등을 收錄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도 할 수 있다.

- 1) 논문은 다른 學術誌(학위 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3) 論文 掲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 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투고 논문이 표절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 (발행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1회로 하되, 2월 28일에 발간

한다.

제6조 (투고 시한) 원고 투고 시한은 12월 말로 한다.

제7조 (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200매를 超過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논문 提出處) 투고 원고는 학회 이메일(studyclassic@naver.com)로 제출한다.

제10조 (게재료) 研究費를 받아서 수행된 論文을 掲載할 경우, 편 당 30만 원의 掲載料를 投稿者가 부담한다.

제11조 (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학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도 수록할 수 있다.
- 2)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의 순서로 작성한다. 단 본격 논문이 아닌 서평 등의 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로 한다.

-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 · ○○○(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 ○○○(연결저자)).
-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 8)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만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단 그 논문의 성격상 중문초록이 의미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문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 9) 脚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 연도(갈

은 해에 여러 편의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20면.

홍길동(2000) 참조.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홍길동 외(2000).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조선인(1988); 한국인(2000) 참조.

홍길동(2000; 2001a; 2001b) 참조.

홍길동(2001b), 66~67면; 조선인(1988), 35~36면;

한국인(2000), 42~47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홍길동·조선인(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조선인·한국인(2000).

홍길동 외(2000).

⑥ 原典 資料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書名 및 卷數,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

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1』 卷17, 「爲李仁榮贈言」, 372면.

『正宗大王實錄』 卷32, 正祖 15년 2월 丁巳. 201~202면.

⑦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135.

Henderson, Gregory(1957), p.19.

James, Palais(1975), *ibid.*, p.107.

Henderson, Gregory(1957), *op. cit.*, pp.20~21.

10) 參考文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 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朝鮮王朝實錄』 46 『正宗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7.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하되, 논문은 수록된

책 속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명기하고 단행본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1998), 『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 편(1999), 『편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2000), 「논문 제목」, 『서명』, 한국출판사, 25~37면.

홍길동(2001a),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215~245면.

홍길동(2001b),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64~85면.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2002), 「논문 제목」, 한국한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4월 5일~6일.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Henderson, Gregory(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VI, No.3. pp.15~29.

1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회지 명 등 - 『 』

②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

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③ 강조, 간접 인용 - ‘ ’

④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
는 기호 생략), 대화 - “ ”

12) 본문 및 각주에서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기본적인 구두점(쉼
표·마침표·물음표·느낌표·따옴표)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적 원칙에 따라 여타의 부호를 추가 표기할 수 있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濟學會 編輯委員會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濟學會 회칙에 따른 編輯委員會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規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 (構成)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제4조 (編輯委員의 委屬)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 1)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 2) 세부 전공 분야의 포괄성(한중일의 문학, 역사, 철학 등 한국 경제학의 제분야를 망라함)
- 3)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 4) 學者로서의 名望과 人格

제5조 (編輯委員長의 選任)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 중에서 會長이 선임하되,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編輯委員會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 (編輯委員의 任期) 편집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編輯委員會의 任務)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 執行한다.

- 1)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會 規程과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

程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제9조 (編輯委員會의 召集) 편집위원회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隨時로 召集한다.

제10조 (編輯委員會의 成立)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闕席한 경우에는 編輯委員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1조 (編輯委員會의 議決)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다만, 贊反 同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審査委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審査委員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제13조 (匿名성과 秘密 維持) 審査用 原稿는 반드시 匿名으로 하며, 審査에 관한 諸般 事項은 編輯委員長 책임 하에 對外秘로 하여야 한다.

- 1) 匿名성과 秘密 維持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인해 심사위원에게 重大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闕席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審査 節次)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編輯委員會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判定 所見을 編輯委員會에 제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투고 논문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
- 4)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修正 要求 事項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결과 '게재 불가'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6) '게재 가'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投稿者는 論文審査書를 수령한 후 所定期日 內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7)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 중에서 修正 要求 事項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해명된 論文에 한하여 掲載를 최종 결정한다.

제15조 (審査의 基準)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2)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 자료 검증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의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 3) 게재 여부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게재 여부 결정의 條件)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각 審査委員의 심사 결과 '게재 가'의 경우 3점, '수정 후 게재'의 경우 2점, '게재 불가'의 경우 0점을 부여한다.
- 2)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8-9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가'로 판정한다.
- 3)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6-7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 4)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編輯委員會에서 掲載 與否를 최종 결정한다.
- 6)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 이상 이어서 해당 호에 모두 수록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부여받은 점수에 근거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7조 (異議 申請) 투고자는 審査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異議申請書を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異議申請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에서 異議申請의 受諾 與否를 결정한다. 수락한 異議申請에 대한 조치 방법은 編輯委員會에서 결정한다.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경학』에 발표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경학』에 투고한 연구자는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4조 (적용 범위)

- 1) 이 규정은 『경학』 공모 논문 심사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경학』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도출과 출판,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4)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6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개·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① 타 연구자의 발상,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

는 행위.

-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학위 논문 포함)의 내용을 출처나 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하는 행위.
 - ⑤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
 - 6) 피조사자 - 제보 또는 연구 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단,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7) 예비 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 8)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 9) 판정 -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제7조 (편집위원 윤리 규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전 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관 분야 전공자에게 회장이 위임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 피제보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후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① 예비 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 통보
- ②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보호
- ③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부의 사항

제10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본 학술지 투고 논문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예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

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 (예비 조사의 절차)

-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 내용이 제4조 각 항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3) 예비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예비 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5) 예비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기초 정보
 - ② 연구 부정행위 혐의 조사의 대상이 된 논문 및 관련 조항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 (본조사의 절차)

- 1) 본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본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가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신원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하고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조사 결과 보고)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⑥ 연구윤리위원 명단과 기초정보

제18조 (판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이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한 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예비 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총무진이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23조 (연구윤리 규정 시행지침)

-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한국경학학회 임원

고 문 : 김언중(고려대 명예교수),
이기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최석기(경상대)

회 장 : 이강재(서울대)

부 회 장 : 김승룡(부산대, 겸 편집위원장),
김용재(성신여대, 겸 학술위원장),
이영호(성균관대), 엄연석(한림대),
박순철(전북대), 정우락(경북대),
서대원(충북대)

총무이사 : 노경희(조선대), 신원철(안양대)

연구이사 : 양원석(고려대), 당윤희(건국대)

섭외이사 : 원용준(충북대), 전성건(안동대), 이승률(경북대)

출판이사 : 함영대(경상국립대), 김수경(공주대)

감 사 : 김성중(계명대), 황병기(대진대)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원)

1) 대학에서 경학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번역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2) 경학 연구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

3) 경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기관회원) 경학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공공도서관.

3. (특별회원) 그 밖에 경학에 관심이 높고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

- 입회 안내

본 학회 홈페이지의 입회 안내문을 따라 회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개인회원: 연 5만 원, 종신회비 30만 원

기관회원: 연 5만 원

혜택: 학회지 증정, 학술대회 초청

계좌 번호: 농협 079-12-486845 이강재

* 학회 입회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tudyclassic@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원고 모집 안내

한국경학학회에서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학회 학회지 『경학』에 게재할 원고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성격/분량

- 학술 논문-고전의 정리 및 경학과 관련한 연구 성과물(번역서에 대한 학술적 비평도 포함)/ 원고지 130매 이내
- 연구사 정리-기존 경학 연구 논저에 대한 연구사 정리
/ 원고지 100매 이내
- 서평 : 경학 연구서 REVIEW-경학 연구 비평 또는 학술 회의 관전 소개
/ 원고지 50매 이내
- 원로 회고 -경학 연구에 참여한 노학자의 경학과 관련한 자유로운 주제
/ 원고지 제한 없음

2. 원고 제출: 학회 E-mail (studyclassic@naver.com)

3. 원고 마감: 매년 12월 31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승룡(부산대 한문학)

편집위원	김용재(성신여대 동양철학)	박순철(전북대 중문학)
	양원석(고려대 한문학)	당윤희(건국대 중문학)
	신원철(안양대 중문학)	노경희(조선대 한문학)
	전병철(경상대 한문학)	전성건(안동대 동양철학)
	서대원(충북대 동양철학)	원용준(충북대 동양철학)
	김수경(공주대 한문학)	함영대(경상대 한문학)
	노명동(홍콩침례대 경학)	김배의(대만사대 중문학)
	강지은(대만대 한문학)	정선모(남경대 한문학)

편집간사 이시연(성균관대 동아시아학)

經 學 4

2022년 12월 30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도서출판 한모임

편 집 한국경학학회

회장 이강재

E-mail: studyclassic@naver.com

제 작 도서출판 한모임

ISSN 2713-9638

값 17,000원

